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네덜란드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네덜란드(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면적	41,540 km ² (자료원 : Worldbank, 2020 기준)
수도	암스테르담(Amsterdam)
인구	17,470,968 명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2020 기준)
민족(인종)	네덜란드인 75.8%, 비서구계 13.7%, 서구계 10.5%
언어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종교	무교(51%), 카톨릭(24%), 신교(15%), 무슬림(5%), 기타(5%)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여름과 겨울 평균 기온이 각각 18.4℃, 2.5℃로 연중 온난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편임.
국가원수	국왕: Koning Willem-Alexander(빌렘-알렉산더, 2013년 4월 30일 취임) 총리: Mark Rutte(마르크 뤼터, 2010년 10월 4일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1-04-04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수교	1961-04-04	한국-네덜란드 수교 체결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1966-04-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사증면제협정	1970-06-01	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1970-12-30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1975-06-01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1-04-27	이중과세방지 협정	
전대차관 협정	1981-06-24	전대차관 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1983-08-01	경제기술협력협정	
해운협정	1995-12-01	해운협정	
사회보장협정	2002-10-01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2005-02-25	투자보장협정	
세관협력협정	2009-02-01	세관협력협정	
한-EU FTA	2011-07-01	한-EU FTA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한국교민 수

3,017 명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 네덜란드 내각 방한

2016년 9월 네덜란드 뤼터 총리의 내각, 첫 방한 경제사절단이 방문했다. 해당 방문에는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 및 농림부 장관인 마타인 반 담과 60여 개 네덜란드 기업체 등이 동행했다. 네덜란드 공무원, 기업, 연구기관 등은 잠재적 파트너십 구축, 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의 활동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주목표로 했다.

경제사절단 방한 일정은 농업, 첨단산업 및 게임산업과 같은 창조산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네덜란드 외교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투자 유치 및 홍보활동과 한국의 잠재적 파트너 발굴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기업 간 개별 미팅, 네트워크 구축, 현장 방문, MOU 체결 등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우수한 빅데이터 산업, 스마트 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정부 기관들은 교통 체증이나 사고 발생 같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한국의 스마트 산업은 네덜란드 스마트 산업 발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평가되었다. 한국은 도시 공간의 개발에 있어 해외 파트너를 발굴하고자 했으며 네덜란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 산업이 점차 PC에서 모바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모바일 게임 기업들은 해외 공급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현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산업에서의 콘텐츠 및 고성능 장비 부족의 문제는 양국의 협력을 통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통해 향후 시장 경쟁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체결한 MOU 사안들에는 빅데이터 협력,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2016년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MOU로 상시화됐다. 각국의 18~30세 청년 100명은 상대국에서 최대 1년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상호 이견이 없는 한 2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경제 관련 사안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뤼터 총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쌍방 협력 결의안을 채택했다.

2) 네덜란드 국왕 내외의 국민 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2014년 11월 3~4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왕 내외와 더불어 경제부 Henk Kamp 장관이 주관하고 네덜란드 기업 약 60개사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함께 방한했다.

빌렘 알렉산더 국왕 내외는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과 뇌 분야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내며 유대관계를 표했다. 11월 4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참관했고, 경복궁을 방문해 17세기 조선에 표류한 하멜 일행이 효종을 알현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행사를 관람했다.

3) 한국전 참전용사

네덜란드는 6·25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이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는 자원 병사 5,282명을 파병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참전용사가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협회(VOKS)에 소속돼 있다. 스텔스베르헨(Schaarsbergen)에 소재한 반 하우츠(Van Heutsz) 연대 내에는 6.25 박물관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위치해 있으며, 이 외에도 로테르담, 로젠달, 위트레흐트 등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6·25 참전 기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마크 뤼터 총리는 우리 정부의 2020년 한국전쟁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전 군인들을 추모하고 양국 간의 협력 증진을 희망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주한네덜란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참전국 대표 자격으로 '평화의 패'를 받았다.

경제

1) 녹색성장과 환경산업

네덜란드는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만큼 치수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고 내륙수로가 발달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네덜란드 풍력산업협회(HHWE)와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는 2014년 4월 양 협회 간 에너지 교육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9월 17~19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네덜란드의 풍력업계와 풍력단지를 시찰하고자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시찰단은 네덜란드의 DAMEN(설치용 선박), ECN(연구기관), MECAL(단지설계), Gusto MSC(대형해상크레인), Strukton(단지건설), TNO(연구기관), Trelleborg Ridderkerk(엔지니어링), VDL KLIMA(발전시스템), We4Ce(블레이드 설계)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

2015년 7월에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네덜란드 해상풍력 설명회가 개최됐다. 네덜란드 해상풍력 컨설팅기업 윈드 마인드는 네덜란드 해상풍력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LS전선, 포스코플랜텍, 대림산업, 해천, 도암엔지니어링, 이레엔지니어링, 유신, 한라풍력 관계자가 모였다.

LS전선과 해천은 해상풍력단지와 육지 계통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 대림산업과 포스코플랜텍은 풍력단지조성, 도암엔지니어링 등은 해상풍력 시스템 사업에 각기 관심을 보였다. LS전선은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암엔지니어링은 제주도에서 윈드마인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미 여러 차례 해외 해상풍력 사업에 접근해 포스코의 강재를 납품하기도 했으며, 대림산업도 해외 진출 노력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농업기술 교류

네덜란드의 농업부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혁신적인 네덜란드 농업기술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융합해 성장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2013년 6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샤론 다익스마(Sharon Dijkma) 농업부 장관이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5년 8월 김홍장 당진시장은 네덜란드 화훼산업도시인 웨스트랜드시와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웨스트랜드시는 세계 최대의 화훼 경매장인 알스미어 경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유럽 선진농업 기술 유치 및 우호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게 됐다.

네덜란드는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 농무관을 파견하고, 한국의 농업진흥청은 Wageningen 대학에 농업연구원을 파견해 농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네덜란드 농식품 클러스터 '푸드밸리(Food Valley)'를 벤치마킹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협력하는 식품전문산업단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 클러스터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진기지에 가깝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 기업의 원료 조달, 기술 지원, 제품 생산, 유통, 수출까지 제품의 전 생산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160개 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할 이곳에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TNO)과 네덜란드 니조 식품연구원(Nizo Food Research) 또한 입주할 예정이다.

3) 원자력산업 교류

네덜란드의 원자력산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하는 등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델프트(Delft)의 원자로 연구소(RID)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발전 용량을 2MW에서 3MW로 늘리기 위한 1,900만 유로 규모의 OYSTER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2014년 6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한국 원자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KAERI 컨소시엄)은 OYSTER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글로벌 원자력 기업인 AREVA(프랑스)와 NUKEM(독일)-NIEKET(러시아)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한국에서 열린 한-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 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에너지·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네덜란드 OYSTER 프로젝트의 계약 서명식을 개최하고, 양국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 원자력기술의 유럽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안전, 원자로 기술개발, 연구용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핵의학·동위원소 기술·나노물질 이용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 정보 및 인력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국 간 원자력 산업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빅데이터 산업 협력

2016년 9월 27일, 네덜란드 통계청(CBS)은 공식적으로 빅데이터 센터(Centre for Big Data Statistics, CBDS)를 출범시켰다. CBDS는 한국의 통계청(KOSTAT)을 포함해 세계 정부기관, 기업체, 과학 및 교육기관들이 참여해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공식적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국-네덜란드 양국은 통계청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통계청은 MOU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빅데이터 분석 기술, 자료연계 방법 연구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상호 인적 교류에 합의했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빅데이터 기술에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지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높은 수준의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대규모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과 양국의 빅데이터 협력으로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된 통계자료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IT 기업 필립스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과 상용화에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의했다. 또한, 구글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의 일환으로 2018년 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네덜란드에 약 6,576억 원을 투자하여 클라우드 플랫폼(GCP) 데이터 센터를 열 계획이다.

문화

1) 네덜란드 내 한류

한국은 네덜란드와 문화협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류는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한국에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20대를 중심으로 자생한류 단체가 만들어져 SNS와 행사를 통해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K-Pop을 넘어 K-Movie, K-Drama, K-Food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8월 발족한 한류콘(facebook.nl/hallyuconNL) SNS 페이지는 2,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로테르담에서 'Kimchi Fair(한국문화 알리기 및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해 270여 명의 유료 관람객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한류콘은 2015년 8월 7일부터 2박 3일간 제2회 한류 캠프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G-Dragon과 밴드 혁오의 콘서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랜드오브피스, 최고은, 새소년은 암스테르담 큐팩토리에서 공연을 선보였으며, 같은 해 몬스타엑스, AFAS, 딘, 지코, 방탄소년단이 네덜란드에서 콘서트를 진행하여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월, 한국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네덜란드 공연을 진행했다. 네덜란드 내 K-Pop의 인기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네덜란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영화 부문에서는 2015년 제44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회고전'을 통해 장진 감독이 12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4년 디지털 삼인삼색프로젝트인 박정범 감독의 '산다', 이광국 감독의 '꿈보다 해몽', 김태용 감독의 '거인' 등 총 19편의 한국영화가 초청됐다. 국제영화제 이외에도 아시아 영화 페스티벌 등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개봉된 작품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있다. 2014년 4월 3일 영화관 Pathe에서 개봉했으며 약 2주간 상영됐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The handmaiden'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해 상영됐다. 2018년 4월 28일 영화관 Pathe에서는 장준환 감독의 '1987',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사'가 개봉해 9일간 상영됐다. 같은 해 11월 15일에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 영화 'Burn the Stage : the Movie'가 상영됐다.

2016년 6월 현대자동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과 3년간 후원 협약을 맺었다. 현대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금액 등 후원을 통해 반 고흐 미술관에 한국어 작품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며 연간 25,000명의 한국인 관람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 관련 교육

네덜란드 내에서는 유일하게 레이던(Leiden)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다. 1961년 한국학 및 일본학 연구부가 창설됐으며, 1989년 인문학부 내 한국학과가 개설됐다. 한국학과에서는 2018년으로 3회차를 맞은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

는 등 한국의 언어, 문화의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레이던 대학교의 한국학 전공이 중국학 전공보다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2016년 집계된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단기체류, 박사과정 제외)은 약 1,880명으로 아시아 학생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다. 네덜란드 정부 장학금을 받은 한국 학생 중 48%는 현지 실용 대학과정인 HBO(Hoger beroepsonderwijs)에서 학사과정, 22%는 연구 대학과정인 WO(Universiteit)에서 학사과정, 18%는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이 어문계열(53%)을 전공하고 있으며 경제학(20%)과 공학(13%)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2.19	2.91	2.6	1.81	-
명목GDP (십억\$)	783.52	833.87	914.1	909.07	-
1인당 GDP (PPP, \$)	51,873	54,062.33	56,438.61	58,340.71	-
1인당 명목 GDP (\$)	46,165.18	48,799.87	53,228.27	52,347.85	-
정부부채 (% of GDP)	61.89	56.91	52.39	49.23	-
물가상승률 (%)	0.11	1.3	1.6	2.7	-
실업률 (%)	6.02	4.85	3.84	3.34	-
수출액 (백만\$)	578,726.17	631,324.79	641,805	671,663	55,451.05
수입액 (백만\$)	501,444.61	546,570.75	559,614	583,685	47,667.5
무역수지 (백만\$)	77,281.56	84,754.04	82,191	87,978	7,783.55
외환 보유고 (백만\$)	69,977	51,362	41,886	42,932	14,291.82
이자율 (%)	0.44	0.45	0.4	-0.14	-
환율 (자국통화)	1.05	1.18	1.14	1.11	-

<자료원 : IMF, DNB,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 네덜란드 통계청>

경제 동향

네덜란드 경제는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 GDP 성장률은 2016년 2.2%, 2017년 2.9%, 2018년 2.6%, 2019년 1.8%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각각 2017년 6.5%, 6.2%, 2018년 3.7%, 3.3%, 2019년 2.4%, 3.1%씩 늘어났다. 실업률도 2017년 4.9%, 2018년 3.8%, 2019년 3.4%로 지속해서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와 2013년 더 블딕 침체의 여파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1분기 수출은 전년 4분기 대비 -4.0%, 수입은 -4.6%를 기록하고, 4월 소비

가 전년동기 대비 17.4% 감소하는 등 경기가 위축되었다. 전국적인 봉쇄정책(lockdown)이 시행된 2분기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GDP는 전분기 대비 8.5% 감소하였고, 일자리 수도 3% 감소하여 32만 2천 여개가 줄어들었다. 3분기에는 가계 소비와 공공 지출, 수출 호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GDP가 7.7% 성장했다. 전분기 대비 가계 소비는 9.4%, 공공 지출은 6.3% 늘어났으며, 수출과 투자도 각각 8.6%, 6.3%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2020년의 경제적 성과는 업종마다 판이하게 나타났으며, 판매 감소는 특히 식품 및 음료업, 숙박업, 수송업,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까지의 수송업의 매출은 동기간 전년대비 21% 감소했으며, 숙박업은 2020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5% 매출 감소에 이어, 2020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64% 감소하였다. 특히 호텔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75% 가량 감소하였다. 식품 및 음료업은 1분기 15% 감소, 2분기에는 46% 매출 감소를 겪었다.

한편, 소매업의 매출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증가하였고, 판매량은 5.5% 늘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동기간 35% 증가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대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Tozo(자영업자를 위한 일시적 지원계획)와 중소기업 기업을 위한 변제 및 지원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까지 네덜란드의 파산 기업의 수는 동기간 전년대비 308개 적은 2,765개를 기록했다.

경제 전망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CPB)은 2020년 네덜란드 GDP가 -5.1%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해 3월 이후 네덜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동 및 영업제한 조치를 도입했고, 이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여 예측한 것이다.

2020년 네덜란드의 수출입은 각각 5.2%, 3.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무역량 역시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2020년 4.4%, 2021년은 6.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채 또한 2019년 비교적 낮은 48.7%에서 2020년 59.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물리적 접촉과 이동제한 중심의 이른바 '지능적 봉쇄'를 통해 모든 카페, 식당,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금지, 휴교시행, 100명 이상 운집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5월부터는 단계적인 봉쇄 완화조치를 시행했으나, 여름휴가 이후 유럽 내 2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10월 14일부터 '부분적 봉쇄' 정책을 다시 단행했다. 이로 인해, 카페, 식당 등 식음료 매장은 음식 포장만 가능하고 슈퍼를 제외하고는 20시 이후 영업을 불가능하다. 20시 이후 다음 날 7시까지의 주류 판매도 금지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2021년 1월 중순까지는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은 2021년에는 수출입이 각각 4.7%,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도 4.1%, 2.0% 증가하여 GDP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9,296,677,190
2	벨기에	45,886,480,415
3	영국	40,015,247,841
4	프랑스	36,083,506,874
5	미국	19,239,943,878
6	이탈리아	17,458,351,192
7	스페인	13,406,262,174
8	폴란드	11,226,888,364
9	중화인민공화국	10,520,046,526
10	스웨덴	9,381,674,98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20,680,920,688
2	벨기에	54,367,269,950
3	영국	44,299,527,185
4	프랑스	42,561,925,953
5	미국	22,344,444,838
6	이탈리아	21,436,450,635
7	스페인	15,575,814,502
8	폴란드	13,456,278,042
9	중화인민공화국	12,787,039,213

10	스웨덴	10,868,249,02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33,522,177,137
2	벨기에	59,288,685,394
3	영국	46,837,611,810
4	프랑스	46,106,181,728
5	미국	28,128,024,404
6	이탈리아	24,000,149,339
7	스페인	17,564,750,388
8	폴란드	15,317,128,474
9	중화인민공화국	12,083,627,196
10	스웨덴	11,699,992,62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33,647,278,083
2	벨기에	61,218,760,298
3	프랑스	45,773,482,734
4	영국	45,734,369,672
5	미국	30,266,272,863
6	이탈리아	23,698,952,581
7	스페인	18,007,465,960
8	폴란드	15,199,368,082
9	중화인민공화국	14,318,730,737
10	스웨덴	11,142,860,53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2,628,734,501
2	벨기에	41,716,680,518
3	중화인민공화국	35,846,315,624
4	미국	32,858,394,269
5	영국	21,328,568,514
6	프랑스	16,673,155,940
7	러시아	13,204,782,523
8	이탈리아	9,913,404,519
9	폴란드	8,377,597,584
10	일본	7,742,426,65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3,973,576,997
2	벨기에	47,663,677,778
3	중화인민공화국	40,787,744,027
4	미국	34,909,200,453
5	영국	26,292,384,121
6	프랑스	17,988,154,027
7	러시아	17,222,576,039
8	노르웨이	11,700,294,517
9	이탈리아	11,111,406,394
10	폴란드	9,191,612,27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1,755,461,435
2	벨기에	52,172,137,332
3	중화인민공화국	46,250,672,714
4	미국	39,903,873,562

5	영국	31,070,541,736
6	러시아	20,362,091,937
7	프랑스	19,525,112,674
8	노르웨이	16,648,787,465
9	이탈리아	12,690,204,685
10	스페인	10,348,443,64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3,957,871,384
2	벨기에	51,730,191,964
3	중화인민공화국	48,151,139,803
4	미국	44,162,297,415
5	영국	27,831,504,734
6	프랑스	19,267,475,771
7	러시아	18,093,911,398
8	노르웨이	13,937,432,124
9	이탈리아	13,783,990,784
10	아일랜드	10,446,551,89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4,568,509,274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398,840,156
3	300490	기타	12,217,881,938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1,120,003,464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883,871,678
6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5,022,344,582
7	844399	기타	4,700,414,529
8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4,284,406,905
9	901839	기타	3,741,873,140
10	060290	기타	3,692,323,77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9,086,071,432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5,682,343,545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212,591,179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3,374,715,788
5	300490	기타	12,873,097,693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827,583,518
7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180,720,957
8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095,398,035
9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5,336,553,977
10	844399	기타	5,116,227,73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3,914,744,240
2	271019	기타	31,515,002,111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1,752,022,781
4	300490	기타	14,809,673,958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630,635,069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7,544,154,706
7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613,204,267
8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6,135,215,234
9	844399	기타	5,364,746,923
10	270799	기타	4,604,223,46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1,409,241,43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8,236,626,416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1,194,484,494
4	300490	기타	15,830,365,531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518,382,715
6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0,573,313,780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8,060,421,937
8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5,954,013,116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622,090,608
10	901890	그 밖의 기기	5,087,038,690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1,579,268,868

2	271019	기타	15,479,424,697
3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2,199,067,071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8,842,205,572
5	300490	기타	7,318,573,135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659,527,939
7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592,964,410
8	844399	기타	4,027,295,399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43,913,168
10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3,310,783,42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8,396,199,675
2	271019	기타	16,596,878,312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069,324,969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3,554,023,691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291,783,468
6	300490	기타	7,113,972,500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7,091,996,327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983,162,480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408,199,332
10	844399	기타	4,294,707,72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5,848,345,75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689,179,725
3	271019	기타	17,589,118,396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793,460,508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241,910,600
6	300490	기타	7,699,355,763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7,474,919,575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127,464,929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621,969,762
10	844399	기타	4,383,635,61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8,054,378,965
2	271019	기타	16,401,964,819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963,089,823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832,080,345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174,767,656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8,547,036,172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8,176,681,804
8	300490	기타	7,284,653,321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700,477,906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561,873,256
----	--------	----------------------------	---------------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3,821	4,229	-408
2017	4,649	6,142	-1,493
2018	4,775	6,897	-2,122
2019	4,243	4,196	47
2020	2,919	4,303	-1,38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348	0	348
2	1333	제트유및등유	295	0	295
3	7411	승용차	261	81	180
4	8138	전산기록매체	131	2	128
5	8411	발전기	243	1	242
6	2262	의약품	127	64	62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9	396	-278
8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03	25	78
9	2140	합성수지	212	63	149
10	6181	합금철	275	0	27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4	전기자동차	227	0	227
2	1333	제트유및등유	217	0	217
3	7411	승용차	191	42	149
4	8138	전산기록매체	167	1	166
5	8411	발전기	142	0	142
6	2262	의약품	125	50	75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4	22	92
8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09	21	88
9	2140	합성수지	102	40	62
10	6181	합금철	98	0	9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4	1,457	-1,444
2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56	288	-132
3	0243	낙농품	0	142	-143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4	63	10
5	2262	의약품	127	64	62
6	0221	가축육류	0	71	-71
7	7411	승용차	261	81	180
8	2140	합성수지	212	63	149
9	7419	기타자동차	2	41	-40
10	1190	기타금속광물	0	8	-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7	2,519	-2,512
2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5	313	-218
3	0243	낙농품	0	135	-135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5	56	-11

5	2262	의약품	125	50	75
6	0221	가축육류	0	43	-43
7	7411	승용차	191	42	149
8	2140	합성수지	102	40	62
9	7419	기타자동차	2	40	-38
10	1190	기타금속광물	0	34	-3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및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5년10월 협상개시, 직전 협상 2019년 5월)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년 3월 1일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년 4월부터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6년 5월 협정 현대화 협상 개시, 2018년 4월 협상 원칙적 합의, 2020년 4월 28일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년 11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0년 9월)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 (2013년 8월 1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2013년 10월 1일) 과테말라(2013년 12월 1일)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년 8월 1일), 페루(2013년 3월 1일), 에콰도르 (2017년 1월 1일)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년 2월 4일))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년 2월 EU 비준 및 2020년 6월 8일 베트남 비준 완료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자료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AEAN	- 2009년 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 2009년 12월, EU-ASEAN 개별 회원국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0년 9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0년 9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 2013년 7월부터 협상 중인 자유 무역협정으로, 2016년 말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 협상: 2014년 5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0년 6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년 2월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2016년 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3년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년 4월 2일 무역 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 (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2000년 10월 1일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13년 11월 협상 개시, 현재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7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협상 개시 2017년 11월 16일), 직전협상: 2019년 4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 협상: 2019년 7월	기존 협정 발효일: 2005년 3월 1일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2013년 10월 12일)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1998년 3월 1일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중, 직전협상: 2020년 6월	2020년 12월 31일 협상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 중

<자료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로 4대 분쟁광물이 신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에 대한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흥분쟁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헬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는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는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기가 특히 요구된다.

○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가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

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치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 부가가치세(VAT) 관련 신규 내용

2021년 7월 1일부로 역외국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변화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 유로 미만의 소규모 제품에 대해 VAT를 면제해왔으나,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22 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해 VAT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전자상거래 판매 중 25%에 달하는 거래가 VAT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생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VAT로 많은 EU 기업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상황을 고려해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

2020년 10월 28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또한,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CLASS'를 2020년 5월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사이트에서도 관세율을 비롯한 수출입 규정이 확인 가능하다.

- CLASS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관련 링크: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반입신고

반입신고의 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 신고(휴대품 등)가 있다. 세관에서는 EU 밖에서 EU 내로 진입하는 화물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전자 리스크 분석에 의거해 실사(Inspection)할 컨테이너를 골라낸다. 이 때 테러 연관성 등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 차단, 위생, 환경 보호, 부적합 품질, 모조품 여부 확인이 진행된다.

또한 EU 진입물품에 대한 세관처리 시 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Douane Manifest(Customs Manifest Customs Entry)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 방식과 적하목록을 전자정보 형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의 전자 포털을 이용해 관세청과 교신하게 된다.

세관 적하물품 신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의 항만이나 공항으로 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반입신고요약서(ENS: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여행객의 개인 화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반입지 세관은 ENS를 비준하고 신고인에게 ENS 등록번호(MRN)를 교부한다. 선박 내 식량 등 예비물품에 대해서는 선박 내 임시저장품 반입신고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 중 한 곳으로 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서 하적(Unloading)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세관에 물품 제시(Present) 시점에서 임시저장품 반입신고요약서(SAL: Summary Declaration for Temporary Storage)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반입신고요약서(ENS) 제출 시 받은 ENS 등록번호(MRN)를 기입해야 한다.

2)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통관 시 무작위로 컨테이너의 물건을 스캐닝하거나 검사실로 보내 수입제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제한 품목이 발견될 경우 소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네덜란드 내 수입제한 품목은 동식물, 골동품, 석면, 금괴, 화폐, 화재경보기, 털, 유해 혹은 가연성 물질(IATA 규정에 정의된 물질), 재를 포함한 신체 잔존물, 보석, 법 및 규정 등으로 운반이 금지된 물품, 사적 이용이 금지된 의약품, 복제품 등이다.

3) 수입통관절차

EU 역외로부터 EU 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제도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해당 물품이 '통관 지정(Customs Designation/Douanebestemming)'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이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Douaneregeling)' 하에 들어가면 통관지정이 부여된다. 통관절차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 자유 유통: EU 역외로부터 EU 세관영역으로 진입하는 물품은 비역내산 물품으로 불린다. 비역내산 물품은 EU 시장에 진입 전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통일 수출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Enig Document)나 전자신고서의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물품 코드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별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Actieve Veredering): '비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작업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EU 역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역내가공절차 이용 시 '납부유예제도의 역내가공'과 '관세환급제도 하의 역내가공'의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역내가공절차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농산품의 역내가공절차는 세관을 거쳐 허가가 진행된다.

○ 역외가공절차(Outward Processing(Active Refinement)/Passieve Veredelng): '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에서 EU 역외 국가로 이동시킨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가공작업을 가하고 해당 가공품을 다시 EU 내에서 자유 유통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완전히 혹은 일부분 면제받게 된다. 역외가공절차 경우, 물품세나 VAT는 면제 대상이 아니나, 네덜란드에서 가공을 위해 임시로 수출된 경우에 한해서는 VAT가 면제된다.

○ 관세통제하 가공(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PCC)/Behandeling Onder Douanetoezicht): '비역내산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EU 내에서 특정 가공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거나 또 다른 통관절차를 받게 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로 특정 제품의 원료에 대해 해당 원료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경우, 혹은 안전·위생·환경상의 이유로 특정 가공을 통해 제품의 형질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 관세통제 하 가공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적체화물처리 업무절차

로테르담항만에 화물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부두에 보관된다. 그 이후 장기 적체 컨테이너 야드(Long-Stay Container Yard)로 이동해 44일까지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장기 Storage Document를 발급해 세관에 제출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이후에도 적체돼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Demurrage, Detention 비용과 Long Stay Yard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 포워드 또는 선사가 발행하는 Storage Document 비용 등이 있다. 선사의 역할은 Arrival Notice 송부, Long Stay Letter 송부, 45일 이상 장기보관 시 Master Consignee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케이스별로 절차와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 통관절차 흐름

- 직송 통관(Custom Clearance) 절차 흐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통관에 약 1.5일이 소요되며 Physical Check의 경우 세관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보세창고 경우 절차 흐름: 물류창고를 경유해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 입고준비서류(도착지 Port 도착)

- 선하증권(Bill of Lading); Mast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HS Code

○ 창고 입고 절차

- 화주(shipper)는 B/L(MAWB, HAWB), C/I(상업송장), P/L(포장명세), C/O(원산지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Hs Code를 도착지 복합운송사(Forwarder)에 송부

- 복합운송사(forwarder)는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로부터 도착지 정보를 수취하면 THC, ISPS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B/L을 받음.

-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창고로 운송할 트럭을 수배하기 전 T-1 서류를 작성. 통관하는 물건일 경우 운송 전 통관을 완료

- 창고 입고 후 선적서류(B/L, C/I, P/L)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HS Code, 출발지, 송장 금액, 중량, 수량을 등록

○ 창고 통관절차

- 창고사는 화주(Shipper)에게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요청

- T-1(보세) 출하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바탕으로 HS Code와 정확한 크기 및 무게를 산출하고 T-1 서류를 작성(단, EU외 국가로 출하 시, 2016년 5월 1일부터 추가로 Re-Export Procedure 진행해야 함)

- 통관 후 출하(Free Good) 시 직접 통관은 먼저 화주가 창고사에 통관을 위임한다는 DV(Direct Representative) 양식을 작성해 창고

사에 송부

- 화주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 번호,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함. 세무대행(Fiscal) 통관은 참고사가 Fiscal Representative가 된다는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계약을 작성해 참고사에 송부
- 화주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번호,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Fiscal Representative임을 명기해야 함.

o 참고 출하 절차

- 화주가 참고사에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발송
- 참고사는 화주로부터 받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근거로 참고출하를 위한 서류(T-1 or Custom clearance)를 작성
- 상업송장에 기재된 Intercoms를 바탕으로 트럭킹 수배를 결정
- CMR(국제도로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 운송서류를 작성
- 제품을 트럭에 실어 출하함.

5) 임시통관(ATA Carnet: 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통관절차 중 하나로,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EU 내에서 사용한 후, 다시 EU 역외국가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실은 화물이 비 EU권 국가로부터 EU 국가로 들어와 로테르담에 적하하고 다시 원래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해당 트럭에 대해서는 임시통관절차(ATA Carnet)가 적용돼 수입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임시로 EU 내에 머무를 수 있다. ATA Carnet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단,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o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 비 EU권 국가의 여행객이 휴가차 네덜란드에 오는 경우 해당 여행객이 가져오는 짐,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 Equipment), 전시회(Fairs/Exhibition)

o ATA Carnet로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부가세법 23조 수입면허를 통한 부가세 유예제도

주기적으로 EU 역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네덜란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부가세법 23조에 따른 수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3조 수입면허 획득 시,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조 수입면허만을 제시하면 된다. 그 후 부가세 정기 신고 시점에서 이를 환급분과 상계해 일괄 처리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부가세 납부/환급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매력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23조 수입면허를 보유한 회계 대리인을 지정해 EU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네덜란드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고 실제 판매될 때까지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수입면허 적용 사례(100유로가량 물품 수입 가정)

- 수입면허 미소지 시: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100유로 제품수입에 대해 21유로(네덜란드 부가세 21%)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함. 이후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통관을 위해 납부했던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부가세를 환급

- 수입면허 소지 시 :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수입면허를 제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부가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서류상 상계처리만 이루어질 뿐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콘솔사에 따라 상이하나 CBM당 핸들링 비용이 약 120~300유로(아시아발), 약 4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250~300유로 소요된다.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또는 암스테르담 지역)는 약 190~300유로가 소요된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로테르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약 1,700~2,000유로가 소요된다. 단, 물류사별 비용 차이와 해상운임 변동이 있음.

3)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 강화

2014년 1월부터 로테르담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실시했던 불시점검이 아닌, 각각의 업체별로 10번째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부터 유해가스 점검에 들어가며 유해가스가 발견될 경우 연속해서 3번의 유해가스 점검을 하게 된다. 3번 모두 컨테이너 내에서 유해가스가 100% 발견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아래와 같이 총 16가지로 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 Methyl Bromide (CH₃Br): 1.0mg/m³ - 0.25ppm
- Formaldehyde (CH₂O): 0.15mg/m³ - 0.1ppm
- Hydrogen Phosphide (PH₃): 0.14mg/m³ - 0.2ppm
- Hydrocyanic Acid (HCN): 1mg/m³ - 0.9ppm
- Oxygen (O₂): No limit / 20.9 vol%
- Carbon Monoxide (CO): 29mg/m³ - 25ppm
- Carbon Dioxide (CO₂): 9,000mg/m³ - 5000ppm
- Petane (C₅H₁₂): 2,950mg/m³ - 600ppm
- Hexane (C₆H₁₄): 176mg/m³ - 50ppm
- Ammonia (NH₃): 14mg/m³ - 20ppm
- Chloropicrin (CCL₃NO₂): 0.68mg/m³ - 0.1ppm
- Sulfuryl Fluoride (SO₂F₂): 10mg/m³ - 2.5ppm
- Styrene (C₈H₈): 85mg/m³ - 20ppm
- 1,2 Dichloroethane (C₂H₄CL₂): 7mg/m³ - 1.5ppm
- Benzene (C₆H₆): 3.25mg/m³ - 1ppm
- Toluence (C₇H₈): 150mg/m³ - 40ppm

4) 소요 시간 및 제출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형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세관 사이트 접속 후 CN 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통관 주체 설정(Fiscal Representative)

EU 해당 국가(네덜란드) 내에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없는 기업이 창고사에 위임권(Power of Attorney)를 제공해, 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창고사에서 책임을 지고 통관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 Limited VAT Representative: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자체 VAT 번호를 이용, 유럽 내 수입 관련 모든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통관 진행을 하는 방법

- General VAT Representative: 사업장이 네덜란드에 없는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에 VAT 등록, 네덜란드 내 회계법인을 통해 통관·VAT 관련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제도(연간 수수료 1,000~2,000유로가량 소요됨)

6) 네덜란드의 수출제한제도와 수출제한물품

- 국제적인 보호 동식물
- 총기·탄약, 폭발물과 모의총기류
- 마약류(Opium law)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Pantos Logistics Benelux BV.

주소	Tupolevlaan 48, 1119 NZ, Schiphol-Rijk
전화번호	+31-20-659-0100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kr/main.do?lang=kr#whyPantos
비고	팩스 : +31 (0)20 659 0110

◦ Geodis Freight Forwarding

주소	Columbusstraat 25, 3165 AC Rotterdam-Albrandswaard
전화번호	+31-10-428-6666
이메일	info.cl.nl@geodis.com
홈페이지	https://geodis.com/nl/en

◦ Schavemaker Logistics & Transport

주소	Lijndenweg 17, 1948 ND Beverwijk
전화번호	+31-251-229098
이메일	info@schavemaker.com
홈페이지	https://www.schavemaker.com/

비고	+31-251-212016
----	----------------

○ CJ Logistics Europe B.V.

주소	Koopvaardijweg 9, 4906 CV, Oosterhout
전화번호	+31-10-360-1020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en/main
비고	팩스 : +31 (0)10 360 1029

○ HTNS Benelux B.V.

주소	Van Cleeffkade 15 , 1431BA, Aalsmeer
전화번호	+31-29-775-3655
이메일	contact@htns.com
홈페이지	https://www.htns.com

<자료원 : 당사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자회사 설립

네덜란드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규모, 투자 형태, 투자 지역, 마케팅 전략 등을 잘 고려해 치밀한 계획이 선행돼야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투자 환경에 따른 투자지역 선정 문제는 투자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환경 조사를 통해 최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투자 기업의 영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간 유한책임법인 설립절차: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자는 상공회의소 등록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민법 공증인을 지정해야 한다.

① 위임장 서명(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대표나 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은 네덜란드 법무 법인의 공증인이 설립자를 대신해 법인의 설립을 위임하는 서류이다. 이때, 서명권자의 권한을 대행한 변호사가 작성한 간단한 법적 진술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서식 제공)

②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초안 작성: 민법 공증인에 의해서 법인의 정관을 포함해 법인증서들의 초안이 작성된다. 법인 정관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돼야 한다.

- 회사명: 회사명은 B.V.(Besloten vennootschap)로 끝나야 하며, 이름이 동일한 회사가 이미 설립돼 있는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회사 설립 목적: 일반적인 회사의 목적과 법인의 주요 활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주소지: 네덜란드 내 법적 주소지를 기재한다.

-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설립자의 권리, 현물 자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

- 주식의 종류, 주식의 액면가 및 발행 주식 수: 주식의 액면가는 대부분 100유로 혹은 1,000유로로 발행하며 다른 단위 및 다른 통화로도 발행 가능하다.

-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 기존 주주나 그 배우자, 친척 또는 해당 법인체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등의 조항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

- 주주총회 규칙, 주주의결권

- 운영, 해산 관련 사항

- 감사 관련 조항

- 재무제표, 회계연도

③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공증: 법인은 법인설립공증서(Deed of Incorporation)를 부여받음으로써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정식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회사설립증서에는 회사명, 주식 발행가, 주주별 발행주수, 정관, 경영 이사진의 이름, 감독 이사진의 이름(감독 이사진이 구성될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다. 회사설립증서는 네덜란드어로 작성돼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법무법인이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한다.

④ 법인(BV) 설립 자본금 및 은행 계좌: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설립 자본금이 최소 0.01유로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를 여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절차를 시작한다. 법인 설립 전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법인은 상공회의소에 가등록(B.V.i.o.)돼 있어야 한다.

신설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위한 구비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인 등기부 등본
- 정관 및 이사회 결의서
- 상공회의소 등록증
- 대표자 및 서명자 여권 사본 및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상업등기(Trade Register): 법인은 법인설립공증서의 날인 날짜로부터 8일 이내에 법인설립공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이사회 임원은 상업등기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법 공증인에 의해 행해진다. 상공회의소 등록과정에는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및 주주(Shareholder)(주식이 있을 경우)의 이름 또한 등록돼야 한다.

⑥ 연차보고서 제출: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차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보충설명자료 등 재무제표와 이사진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는 다르다. 2013년 1월부터 상공회의소의 활동비를 경제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에 따른 연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경영 이사진은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주주들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진의 경영보고서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기에 작성돼야 하며, 주주들은 재무제표 및 경영보고서 제출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전 모든 경영 이사진과 감독 이사진(있는 경우)이 재무제표에 서명해야 한다.

○ 설립 이후 정보 변경

사업활동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정보 갱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주소, 웹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기업명은 변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공회의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접 상공회의소에 갈 필요는 없으며 변경 신청서를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받아 기재한 후 등록된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기업이 등록된 지역 상공회의소에 송부해야 한다. 등기이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2) 지점 설립 절차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과 같이 민법 공증 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상공회의소에 상업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네덜란드어로 진행돼야 하므로 통상 한국 기업들의 경우 네덜란드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상공회의소 등록 후 모든 지점은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Trade Register)에 모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 데이터의 범위는 다르다. 상공회의소의 네덜란드 상업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의 기본정보와 모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지점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
- 지점에 대한 설명
- 지점 직원 수
- 주소
- 해당 전화번호, 도메인 이름, 전자메일 주소, 팩스 번호
- 지점 설립 날짜
- 사무실·부지 임대계약서 사본
- 지점 경영진 및 대리인(Proxyholder) 개인 정보(여권사본)
- 기타 유사한 임원에 대한 개인 정보(ID 카드·여권 및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및 거주등록 증명서의 복사본)

등록에 필요한 외국 모회사 세부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에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하다.

- 회사명과 회사의 법적 형태
- 회사 주소
- 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 상업등기(Foreign Trade Register) 번호와 발급 후 1개월 미만의 현지 상업등록 영문번역 공증서 원본
- 회사 영문 등기부 등본
- 주주 명부, 이사회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여권 복사본)
- 정관사본 및 정관 영문공증서
- 모기업 재무제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작성)
- UBO Statements(Ultimate Beneficial Owner)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KVK Number) 받게 되며, 자동으로 네덜란드 세무서(Belastingdienst)에 등록돼 VAT(BTW) 번호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상업 등기에는 통상 1주 이내가 소요되나 모 회사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상담창구: 네덜란드 KPMG 회계법인 연락처(han.sunghil@kpmg.com 한성필 이사, Ok.Jeongoh@kpmg.nl 옥정오 회계사)

3)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대표사무소 설립은 법인 설립과 같은 공증절차는 없으며, 지점의 등록방법과 동일하다. 상업 등기 후 모든 대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모기업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 데이터의 범위는 다르다.

4)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을 위한 민법 공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상공회의소에서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등기가 완료된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보건 및 소방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물 취급 사업의 경우 역시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vk.nl)에서 업종별 필요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부동산 계약

네덜란드 상업용 부동산은 크게 일반 상업용 부동산과 소자본상업용(소매·외식업용)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소자본상업용 부동산은 소매 점포, 레스토랑, 카페, 호텔, 캠핑장, 테이크아웃매장, 수공예 매장, 대형마트의 체인, 숭인숍(Shop-in-Shops), 정비소, 세탁소, 주유소 등이 이에 속한다. 소자본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다른 계약에 비해 임차인 보호 장치가 많은 편이다. 일반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공간(Kantoorruimte)이라고 불리며 공장, 사무실, 대소형 창고, 은행, 제품 전시장, 여행사, 신문 보급소, 복권판매점, 카지노, 성인 클럽, 극장, 자전거 주차장, 운전학원, 렌터카업체, 작업장, 숙박시설 임대업체, 장례업체, 스포츠센터, 클럽회관, 약국, 각종 진료소, 프리랜싱 업무 장소(건축사, 변호사 사무소 등) 등이 포함된다.

- 임대차 기간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며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차 기간을 결정하면 된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일반 상업용 부동산 계약의 '임차인에 의한' 종료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만기와 함께 종료되며 별도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유기 임차계약이 만기된 경우에는 계약상 기간에 맞춰 퇴거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원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5년의 계약 기간과 동시에 계약종료 사전 통보기간 및 2~3년의 기간 연장(Optional Year)을 두어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5년이 끝나기 전 정해진 통보기간 내에 계약 종료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된다. 암스테르담 자우다스(Zuidas) 권역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사무실을 비롯한 많은 사무용 건물이 '만기 1년 전'이라는 꽤 긴 사전 통보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유기(有期) 임차계약을 하되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장 기간(Optional Year)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만기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유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사전 통보 기간을 1년이 아닌 '만기 9개월 전' 혹은 '만기 6개월 전' 등 좀 더 유연하게 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종료) 통보를 할 수 없다. 즉, 유기(有期) 임차계약 중에는 해당 사무실을 비운다 하더라도 종료일까지 계속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는 처음부터 5년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2~3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2~3년 임차+연장기간 형태의 계약이 권장된다.

○ 임대료

임차료 수준과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으나, 임차 기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법원이라 하더라도 임차료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일정 기간별로 임차료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차료 인상은 통상 네덜란드 통계청이 매년 제시하는 임대료 조정 지수(Index)를 따르도록 계약에 명기하나, 매년 특정 금액인 비율만큼 인상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상업용 부동산 임차료는 계약 기간에 고정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매월 지급할 임차료가 명시된 상태로 체결된 후에 해당 금액이 주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도 재협상 시점까지는 정해진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 서비스비용

좁은 의미의 서비스 비용은 전기, 난방, 수도, IT 네트워크, 관리유지, 설치, 청소, 쓰레기처리, 주변 환경 유지, 관리인(수위), 보안, 보험 등의 비용과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 비용은 이 항목에 시설 관리 비용(구내식당, 케이터링, 음료자판기, 건물 보안, 청소, 우편물 접수, 서비스 데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다.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후자를 서비스 비용으로 통칭하며 전기료는 별도 산정하기도 한다.

임차 계약 전에 월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면 임대인은 주로 비용이 가장 낮게 나올 때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이 비용 확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의로 이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 1년간 실제 지급하는 비용이 당초 예상치의 수 배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전,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해당 부지/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담은 '연간 비용 산정표'를 요청하고, 특히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분명한 서면 합의를 맺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6) 국가별 보고서 작성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책으로서 투명하고 자동적인 조세정보교환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OECD는 역외조세회피(BEPS) 액션플랜 13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네덜란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2017년 6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와는 보고서 교환에 대한 협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 규모 이상의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회계연도 결산 후 12개월 안에 네덜란드 조세 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네덜란드 내 결산안, 소득세 납부 전 이윤, 납부 소득세, 누적 이윤, 고용 직원 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네덜란드어 혹은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현재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약 150개의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 추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최종 모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세정보교환에 협

의하지 않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 등 특정 경우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해 제출사항의 누락이나 과실 등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 사정관은 최대 20,2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국가 법원에 이를 기소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1) WBSO(R&D Wage Tax Credit)

* R&D 인센티브

- 지원대상
 - 법인세/소득세 납부 R&D 수행 기업/연구자
- 선정기준
 - 연간 최소 500시간 이상 R&D 수행/네덜란드 내 소득세 납부/제품 개발·공정·프로그래밍·기술개발 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WBSO 인증기업은 R&D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Payroll Tax)와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지원
 - 기술적 과학적 연구와 신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등 2가지가 대상
 - WBS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자사가 진행하는 R&D 프로젝트의 총비용 수혜 혹은 실제 비용 수혜 중 하나의 혜택 가능
 - 혜택은 R&D 노동가격과 고정지출 비용을 고려해 산정
 - WBSO 혜택(2017년 기준) : 일반기업은 R&D 인건비 중 최초 35만 유로의 32% 공제하며 그 이상은 인건비의 16% 공제, Startup 기업은 R&D 인건비 중 최초 35만 유로의 40% 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에서 12,522유로 공제하며 Startup 신규 개인사업자는 6,264유로 추가 공제
 - WBSO 수혜를 위해서는 R&D 수행시간·비용 기록 필요. 모든 기록은 1년 단위로 마감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록 완료
- 신청방법
 - WBSO를 신청할 때는 계획된 R&D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의 정보를 신청기관에 제공
 - 법인이나 연구소가 WBSO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약 3번 있으며 결정까지 3~6개월 소요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2020년 예산은 128,100만 유로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2) Innovation Box

* R&D 인센티브

- 선정기준
 - 특허 보유 및 WBSO 수혜 업체
 - 대기업의 경우 특허, 독점면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식물육종가권리(Plant breeder's right) 또는 제약인증 등이 필요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R&D 프로젝트 발생 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법인세율(25%)이 아닌 5%로 대폭 낮춰 적용
 - 라이선싱, 특허 이득 및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에 의한 자본소득도 해당
 - 2013년부터는 법인세 5%로 감면 적용받는 방법과 최대 25,000유로 이하 이윤의 25% 고정금액을 감면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3) MIA/VAMIL (Milieu Investeringsaftrek / Willekeurige afschrijving milieu-investeringen)

* 에너지·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지원대상

- 법인세/소득세 납부 모든 기업

○ 선정기준

- '환경리스트'에 공개된 300개 내외의 제품·서비스에 투자하는 기업(친환경 투자기업) (*환경리스트는 RVO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기업의 환경 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혁신적인 환경친화적 제품의 시장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자산에 투자할 경우 MIA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비용의 36%를 공제

- 또한 VAMIL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의 감가상각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수혜가 가능한 최소 투자금액은 2,500유로이며 최대 투자금액은 2,500만 유로임.

· 재원(financial resources): 중앙정부, 2020년 예산은 12,400만 유로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4) Energy Investment Allowance(EIA)

*에너지·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지원대상

- 네덜란드(네덜란드령 포함) 소재 기업

○ 선정기준

- 에너지 절감·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투자 기업으로서 EIA 프로그램(Energie-investeringsaftrek) 적용 가능한 160개 내외의 제품
과 서비스

(RVO 홈페이지에 공개) https://www.rvo.nl/sites/default/files/2020/03/Energy%20List%202020_0.pdf

- 환경면허(Environment Permit)나 환경 관련 빌딩면허 소유 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EIA 프로그램 도입

- EIA 프로그램은 사옥, 프로세스, 운송,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컨설팅 등에 해당하는 약 160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적용

- 에너지 투자에 대한 비용의 55.5%를 법인세 과세대상 이윤에서 공제해줌.

- 수혜가 가능한 각 자산의 투자비용은 최소 2,5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투자액은 최대 1억 2,000만 유로임

· 재원(financial resources):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5) 외국인 근로자 30% 비과세 혜택

○ 지원대상

- 외국인 노동자

○ 선정기준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불가능한 기술 또는 희귀한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네덜란드 인정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 네덜란드 국경에서 150km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네덜란드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과세 적용. 고용주가 함께 신청해야만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최소임금은 2020년 기준 38,347유로(비과세 금액 제외)이며, 30세 미만은 29,149유로(비과세 금액 제외)임. 단, 과학자/연구원은 최소 소득 기준이 없음
- 30% 비과세 제도는 총 96개월까지 적용 가능
- 이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시 내국인 대비 학비, 주거비, 생활비가 더 발생하므로 고용주의 고용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도입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세무당국

6) 금융소득 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 지원대상
 - 모든 기업(모기업 또는 본사)
- 선정기준
 -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 지분은 장기 투자 목적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투자 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세무당국 중앙정부

제한 및 금지(업종)

1) 외국인 투자제한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 지점 설치, 법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국영 공영방송(TV, 라디오)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및 유사형태 기관 설립은 금지되나 이외에 은행, 방송업도 상업적 목적하에서는 진출이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건설, 자동차, 식품 등 특수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환경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사무실을 건축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EU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101조, 102조에 바탕을 두어 독과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네덜란드의 경쟁법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 시에 경쟁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법은 1998년 1월 1일 발효됐다. 경쟁법은 카르텔 또한 금지하고 있다. 카르텔은 원래 기업 담합,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말하나 경쟁법은 네덜란드 시장의 모든 형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띤 기업 간의 모든 활동을 카르텔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기관,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 네덜란드 시장과 연관이 있는 모든 단체가 경쟁 법의 적용을 받는다.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 Autoriteit Consument & Markt,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은 경쟁법을 적용해 카르텔을 형성한 주체들에게 전해 회계연도의 매출액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쟁법을 어기고 카르텔을 주도한 개인에게는 최대 450,000유로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후 전 세계 소득이 1억 1,345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회사 중 2곳 이상의 네덜란드 내 매출액이 3천만 유로를 초과할 때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 Autoriteit Consument & Markt,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 분야 및 의료 기관들에는 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인수합병이 유럽집행위의 관할인 경우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인수합병의 진행 중 언제 ACM에 보고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보고 후 4주간은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ACM에서 공식적으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4주 안에 ACM은 기업에게 인수합병 허가 필요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만일 ACM에서 (별도의 연장 없이) 4주 동안 허가 필요 여부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수합병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4주 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바로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인수합병이 네덜란드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ACM은 허가(License)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후 13주간 ACM은 심층 검토를 수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가 허가 권한을 가진다.

국제금융관계법(Wet financiële betrekkingen buitenland 1994)에 따라 네덜란드 내의 특수금융기관(Bijzondere financiële Instelling)들은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등록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서 특수금융기관은 주로 네덜란드 국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회사의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참고) 역외 조세회피(BEPS) 기업 방지를 위한 제한사항

네덜란드는 지주회사에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 피난처'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를 비롯한 세계적인 정책이 역외조세회피(BEPS)를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흐름에 맞춰 네덜란드도 조세회피에 기여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세금회피 개선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월 1일 자로 시작되는 법령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Substance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네덜란드에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조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이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와 사전 조세예규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다른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해외 조세 당국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 실존하는 기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50% 이상의 법정 이사(Statutory Director)가 네덜란드 거주자여야 한다.
-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법정 이사진은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며, 법안 거래에 대한 자유재량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사회 결정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인의 주요 은행계좌가 네덜란드에 있어야 하고, 회계와 부기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조항들이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네덜란드에 관세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나, 네덜란드 내 대표적인 상업지구로는 암스테르담 남부 '자우다스(이하 Zuidas)' 지역이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2018년 40여 개 업체가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투자청(NFIA)에 따르면 2019년에는 397개 다국적 기업이 네덜란드로 이전해 왔으며 이 중 78개사는 브렉시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Zuidas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역이다. Amstel 강과 Schinkel 사이에 위치하며 Amsterdam Zuid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Amsterdam Zuid 역은 향후 유럽 고속열차 Thalys, 독일 고속열차 ICE의 노선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Zuidas 지역에는 세계 각국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WTC(World Trade Center) 건물과 ABN-Amro, AkzoNobel 등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모여있다. 런던에 있던 유럽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 Agency)이 Zuidas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런던에 소재한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이 전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 푸드 밸리(Food Valley)

위치	Wageni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Wageningen University ○ 웹사이트: foodvalley.nl ○ 주소: Nieuwe kanaal 7J 6709 PA Wageningen, p.o. box 294 , 6700 AG Wageningen ○ 이메일: info@foodvalley.nl ○ 전화: +31 317 42 7095
비고	<p>암스테르담 인근에 위치한 바게닝겐의 푸드밸리는 유럽의 대표적 식품산업 클러스터이다. 농식품, 생명과학, 유전학, 영양과 보건 등에 주로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 밸리 재단을 설립했다.</p> <p>주요 입주 기업으로는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이 있으며 과학자 8,000여 명 및 식품 전문가 1만 5,000여 명이 20여 개의 전문 기관에 모여 연구하고 있다. 대표 연구기관으로는 바게닝겐대 연구센터가 있다. 푸드 밸리에 입주한 기술 혁신단체들에게는 정부 보조금 및 연구 사업 지원금이 제공된다.</p>

○ 헬스 밸리(Health Valley)

위치	Nijme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healthvalley.nl ○ 전화: +31(0) 243558737 ○ 이메일: info@healthvalley.nl ○ 주소: Novio Tech Campus, building A, Transistorweg 7R 6534 AT Nijmegen
비고	<p>헬스 밸리는 의료산업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산업 구역으로, 네덜란드 동부 지역(아인트호벤 - 네이메헌- 엔스헤데(Enschede))을 잇는 구간을 말하며, Red Med Tech Highway라고 불리기도 한다.</p> <p>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케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지식과 기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Abbott, Medtronic, Biotronik, AstraZeneca 등의 기업들과 Nijmegen 대학이 연계해 랩온어 칩(Lab on a Chip), 전립선암 진단 테스트 기술 등을 발명했다.</p> <p>이 지역들(푸드 밸리 및 헬스 밸리)에서 식품 기술과 의약 기술을 통합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은 사례로는 약리적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인 새로운 준의약식품, 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 임상 영양제, 조제분유 및 스포츠 영양제 등이 있다. 분자 의학, 진단 및 영상, 현장 진단을 위한 나노 기술, 재활 기술 및 로보틱스 등이 이 지역만의 특별한 강점이다. 헬스 밸리는 의료 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및 기술파트너에게 정부 보조금, 시설 및 연구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세 특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p>

○ 에너지 밸리(Energy Valley)

위치	Groningen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energyvalley.nl ○ 전화: +31 (0)50 789 00 10 ○ 주소: Nijenborgh 6, 9747 AG Groningen
비고	<p>흐로닝헌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북쪽 네 개 주를 아우르고 있는 단지이며,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해 연구한다.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분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Groningen대와 Hanze대가 함께 참여하며 화석 원료 사용의 전환을 위해 연구한다.</p>

○ 그린포트(Green Ports)

위치	Westland-Oostland, Venlo, Aalsmeer, Duin- en Bollenstreek, Boskoop, Noord-Holland Noord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Greenportholland.com ○ 주소: Bezuidenhoutseweg 12, 2594 AV Den Haag
비고	<p>원예산업은 그린 포트(Green ports)라 불리는 정부 주도 설립의 6개의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산업, 학문, 연구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p>

○ 시드 벨리(Seed Valley)

위치	Hoor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seedvalley.nl ○ 주소 : Blauwe Berg 3A, 1625 NT Hoorn ○ 전화: +31 (0) 88 123 7333 ○ 이메일: info@seedvalley.nl
비고	<p>시드 벨리는 North Holland 주의 Enkhuizen 지역과 Warmenhuizen 지역 사이의 클러스터 단지를 일컬어 부르는 이름이다. 씨앗 종자 육성, 씨앗 생산, 고품질의 씨앗 및 종자 판매, 기본 육성 재료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종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관련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루어지는 곳이다.</p> <p>Ontwikkelingsbedrijf Noord-Holland(North Holl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는 2008년경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클러스터 내부로의 투자, 전문가들의 유입, 전문 기술의 공유를 목표로 현재 27개의 기업이 협업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 몬산토(Monsanto Holland)를 비롯해 네덜란드 기업 베커스 브라더스(Bakkers Brothers)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p>

<자료원 : 각 산업단지 관할기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로테르담(Rotterdam)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다. 로테르담에서 600마일 반경에 2.2억 명의 소비자와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로테르담 항구의 Liquid 벌크를 중심으로 45개 이상의 화학 관련 기업들과 5개의 정제소, 전력 발전소 등이 위치하여 석유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Royal Dutch Shell, LyondellBasell 및 Vopak, Odfjell Terminals & Shipping 등이 있다. 원료와 반제품 등 생산체인의 다양한 제품 생산 기업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회사의 생산폐기물이 다른 회사의 원료가 되기도 해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북브라반트지역(Noord Brabant)

네덜란드 첨단산업 단지인 아인트 호벤을 중심으로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 장비 제조) 등 유력 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 입지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네덜란드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R&D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Exxon, GE, IBM, Bosch 등을 비롯한 1,100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위치해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하이테크, 정보통신, 의약품 및 의료, 화학, 자동차, 태양 에너지, 식품 등이다. 이 지역은 또한 TNO, Dutch Polymer Institute, ECN(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MiPlaza, Holst Center 등 주요한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브라반트 지역은 주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2017년 브라반트(웨스트 브라반트) 지역은 네덜란드 내 최고 유통물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암스테르담(Amsterdam)

네덜란드의 수도로 유럽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기업인 Heineken, Ahold(유통업), Akzo Nobel(화학), ING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주요 산업으로는 정보 통신 산업, 생명과학 및 의료 기술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물류산업, 원예농업 및 식품 산업,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있다. 알스미어 화훼 경매장 및 스키폴 공항이 인접해 있다.

2012년 암스테르담 투자진흥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2,2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으며 그 중 464개가 유럽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Cisco(미국), Hewlett Packard(미국), IBM(미국) 등이다. 브렉시트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스테르담 지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 남홀란드 지역(Zuid Holland)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인 헤이그를 비롯해 델프트, 라이덴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ICT, 생명공학, 수자원관리 분야의 입지로 유력하다. 델프트공대, 라이덴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유럽의 가장 성공적인 과학단지 중 하나인 라이덴 Bio Science Park도 위치해 있다.

○ 플레볼란드 지역(Flevoland)

바다를 간척해 조성된 지역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농업, 유전자기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수자원관리 분야의 입지로 유력하다. 현재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외국 기업은 Giant(대만), Yakult(일본), Mitsubishi-Caterpillar Forklift Europe(일본/미국), LG전자(한국), IBM(미국) 등이 있다. 플레볼란드(Flevoland)지역의 렐라이스타드 공항(Lelystad Airport) 확장은 202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공항 확장은 더 많은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178,990	30,698	60,478	114,306	84,216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247,737	156,621	46,902	-18,843	124,652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53	9	847,904	100	755,753
2019	50	11	227,433	80	174,707
2020	22	3	170,356	38	122,8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18	29,013
제조업	7	0	3,491	17	5,4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58	1	5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0	34,071	2	34,039
건설업	11	0	7,893	20	6,281
도매 및 소매업	11	2	18,843	20	4,593
운수 및 창고업	6	0	1,113	9	1,249
정보통신업	4	1	6,977	4	6,982
금융 및 보험업	5	2	640,428	5	640,399
부동산업	2	0	107,126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3	27,904	4	27,70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11	5,633
제조업	12	2	9,084	19	8,6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6,452	2	6,453
건설업	8	1	3,697	14	3,816
도매 및 소매업	6	1	14,022	15	12,448
운수 및 창고업	9	1	789	8	689
정보통신업	1	0	3,978	1	3,972
금융 및 보험업	2	0	156	2	155
부동산업	4	1	177,845	1	122,0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10,055	2	10,05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520	2	5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835	3	2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1	182
제조업	2	0	821	7	6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0	10,618	2	10,576
건설업	5	1	65,278	10	18,520
도매 및 소매업	3	0	91,760	8	91,027
운수 및 창고업	5	1	1,609	5	1,609
정보통신업	1	1	111	1	111
금융 및 보험업	2	0	157	0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1	2	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0	1	2	16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기아자동차네덜란드법인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현대글로벌비스암스테르담사무소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완성차 해상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글로벌비스(주)

○ 한국타이어(주)네덜란드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

○ 넥스필유럽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유리필름, 단연필름(본국제조)의 수입 조달 후 내수시장 도소매 유통 및 제 3국 수출
모기업명	넥스필(주)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위성안테나, 선박용 위성 방송 수신용 안테나, 위성 통신 송수신용 안테나
모기업명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주)

○ 대동공업(주)유럽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농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디젤 엔진 등
모기업명	대동공업(주)

○ 현대자동차네덜란드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삼성전자(주)베네룩스법인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현대종합금속(주)네덜란드지사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용접재(Welding Consumables)
모기업명	현대종합금속(주)

○ S-OIL암스테르담지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Lube Base Oil(LBO)
모기업명	S-오일(주)

○ 마르시스유럽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방송수신기기
모기업명	마르시스

○ 인터불고 유럽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한국식품, 일본식품
모기업명	인터불고

○ 범한판토스(주)베네룩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해운/항공 수출입 운송, 통관, 창고, 배송, 수출입 대행
모기업명	범한판토스(주)

○ 제일베네룩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마케팅 기획 및 서비스
모기업명	제일기획(주)

○ KEB 하나은행 암스테르담지점

진출연도	197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외국환업무(송금, 환전, 수출, 수입 등), 수신업무(예금, 적금), 대출업무, 인터넷 banking
모기업명	KEB하나은행(주)

○ 삼성전자(주)유럽물류법인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구주 삼성전자 판매법인에 대한 통합창고 운영 및 물류 서비스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현대중공업(주)로테르담지사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운송장비
모기업명	현대중공업(주)

○ 현대상선네덜란드법인

진출연도	1992
------	------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상운송 대리점
모기업명	현대상선(주)

○ 롯데글로벌로지스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현대로지스틱스(주)

○ CJ대한통운(주)네덜란드법인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항공 수출입 운송, 통관, 창고, 배송, 수출입대행
모기업명	CJ대한통운(주)

○ 대한항공(주)암스테르담지점(화물)

진출연도	197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여객 및 화물 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하나로TNS베네룩스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법인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하나로TNS(주)

○ 위닉스유럽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공기청소기, 정수기
모기업명	위닉스(주)

○ 마크로젠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DNA 시퀀싱 분석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마크로젠(주)

○ 히다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암스테르담지점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ODD(Optical Disk Drive), Component related with optical sensors
모기업명	Hitachi-LGDataStorage

○ 대상(주)유립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식품원료, 건식원료, 가공식품, 김치
모기업명	대상(주)

○ LG전자(주)유립지원법인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관계사를 위한 Shared service기능(물류,서비스,금융,tax 등)
모기업명	LG전자(주)

○ LG전자(주)유립B2B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 및 기계 제품
모기업명	LG전자(주)

○ LG전자(주)베네룩스판매법인

진출연도	1999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핸드폰 등
모기업명	LG전자(주)

○ LGCNS유럽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IT Consulting, System maintenance
모기업명	IT Consulting, System maintenance

○ 한솔(주)유럽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한솔제지의 인쇄, 산업, 감열지 판매와 재고관리, 유럽지역 고객확보와 서비스 강화
모기업명	한솔제지(주)

○ 대우루컴스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CCTV 모니터
모기업명	대우루컴즈(주)

○ LS산전유립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력, 자동화 사업,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모기업명	LS산전(주)

○ GB인더스트리유립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증장비(유압브레이커)
모기업명	지비(주)

○ 쌍용자동차(주)유립부품센터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A/S용 부품
모기업명	쌍용자동차(주)

○ SK루브리컨츠유립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베이스오일, 루브리컨츠, 윤활유의 주요 원재료 기유(base oil)를 유럽지역 주요 윤활유 제조사에 공급
모기업명	SK루브리컨츠

○ 인바디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료 기기
모기업명	인바디

○ 사운드그래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
모기업명	사운드그래프

○ 가온미디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셋탑박스 등 방송송출 장비
모기업명	가온미디어

○ 셀트리온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바이오회약품

모기업명	셀트리온
------	------

○ 알티캐스트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방송서비스
모기업명	알티캐스트

○ 두산인프라코어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건설관련 기기
모기업명	두산그룹

○ 부산항만공사 유럽대표부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모기업명	부산항만공사

○ 가온미디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Set Top Box, WiFi AP Router, Cable Modm, XDSL Modem, AI Speaker
모기업명	가온미디어

<자료원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네덜란드의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구분된다. 유한회사(Besloten Vennootschap, B.V.)는 영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td) 혹은 독일의 유한회사(GmbH)와 유사한 형태로 유한 책임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길 원하는 소수의 관계 당사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주식회사(Naamloze Vennootschap, N.V.)는 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나 독일의 주식회사(AG)와 유사한 형태다.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대행료 및 향후 세무당국 등록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립 이후에는 연간 재무제표 작성, 상공회의서 연간 협회비, 기타 조세 관련 비용 등 연간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법인세 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당금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은 15%이나 네덜란드와 한국 간 조세 협정에 의거 10%로 감면된다. 또한, 네덜란드 VAT 법령 준수 의무 및 정기적인 VAT 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2021년 8월부터는 유한회사 설립 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사

외국인 투자자가 네덜란드에서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으려면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고정적으로 설립되는 외국 기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니므로 지사 활동의 모든 결과는 본국의 모회사에 네덜란드의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지사는 N.V와 B.V.와 같은 네덜란드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법률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절차는 필요 없고 상공 회의소에 Kamer van Koophandel (KvK) 등록을 통해 설립이 가능하며, 모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에 비해 연간 재무제표 작성, 상공회의소 협회비 등 연간 유지비용이 적고, 배당금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사 설립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과 같이 민법 공증 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상공회의소에 상업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네덜란드어로 진행돼야 하므로 통상 한국 기업들의 경우 네덜란드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상공회의소 등록 후 모든 지점은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Trade Register)에 모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 데이터의 범위는 다르다. 상공회의소의 네덜란드 상업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의 기본정보와 모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지점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
- 지점에 대한 설명
- 지점 직원 수
- 주소
- 해당 전화번호, 도메인 이름, 전자메일 주소, 팩스번호
- 지점 설립 날짜 - 사무실·부지 임대계약서 사본
- 지점 경영진 및 대리인(Proxyholder) 개인 정보(여권사본)
- 기타 유사한 임원에 대한 개인 정보(ID 카드·여권 및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및 거주등록 증명서의 복사본)

등록에 필요한 외국 모회사 세부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에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하다.

- 회사명과 회사의 법적 형태
- 회사 주소
- 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 상업등기(Foreign Trade Register) 번호와 발급 후 1개월 미만의 현지 상업등록 영문번역 공증서 원본
- 회사 영문 등기부등본
- 주주 명부, 이사회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여권 복사본)
- 정관사본 및 정관 영문공증서 - 모기업 재무제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작성)

UBO Statements(Ultimate Beneficial Owner)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KVK number) 받게 되며, 자동으로 네덜란드 세무서(Belastingdienst)에 등록돼 VAT(BTW) 번호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상업 등기에는 통상 1주 이내가 소요되나 모 회사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통상 세무상의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를 지점과는 별도로 대표사무소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지점으로부터 대표사무소를 구분하는 근거는 '행위'에 달려있다. 외국 법인의 지점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그 행위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해 '대표사무소'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즉,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대표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 연락 등)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사무소는 법적인 형태가 없는 만큼 설립 과정은 지점과 동일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비과세로 신고하게 된다. 만일 대표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 따로 정사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며, 이후 네덜란드 내에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구분된다. 주식회사(Naamloze Vennootschap, N.V.)는 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나 독일의 주식회사(AG)와 유사한 형태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 최소 요구 자본은 45,000유로
- 다양한 형태의 주권 발행이 가능
- 모든 주주는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짐.
- 정관에 따라 양수도가 제한될 수도 있음.
- 무기명 주식 발행이 가능하며,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양도할 수 있음.

2) 경영구조

- 연차주주총회 개최
- 대기업이 아닌 한 감사(혹은 비상임이사) 임명이 의무가 아님. 대기업의 경우 감사(혹은 비상임이사) 임명이 의무이며 감사가 이사회 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음.
- 네덜란드 기업지배현장에 따라 이사회 의 남녀 구성 비율이 공개돼야 함.

3) 이윤배당

-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이윤배당 의결을 제안함. 어떤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요구되며, 주주총회는 배당안을 의결함. 배당은 자본과 채권자 보호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4) 설립 절차

- 사무실 주소 준비(회사)
- 법인 설립 관련 Advisor 계약 (회사&자문사)
- 법인 설립: 정관 준비(법률사무소), 설립공증(법률사무소), 상업등기소등록(법률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 세무서 등록(회계법인 이용): 기본적으로 법인세-CIT, 부가세-VAT, 개인소득세-Wage tax 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은행계좌 오픈(회사)
 - 네덜란드 투자청(NFIA) Statement of acknowledgement 발급(회계법인 이용)
 - 법인등록(회사를 주재원 스폰서로 등록) (회계법인 이용)
 - 고용계약서 작성(회사)
 - 주재원 거주허가(HSM: Highly Skilled Migrant Scheme 가정) (회계법인 이용)
 - 영업 준비(집기 비품, 차량, Warehouse, 통신 등) (회사)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물리적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로, 법인 설립이 마무리돼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가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네덜란드의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구분된다. 유한회사(Besloten Vennootschap, B.V.)는 영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td.) 혹은 독일의 유한회사(GmbH)와 유사한 형태로 유한 책임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길 원하는 소수의 관계 당사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설립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 최소 요구 자본 없음.
- 설립자는 주식 발행 수와 납입자본을 정하며, 이를 정관에 명기함.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배당권이 주어지지 않음.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배당권이 필요하지 않음.
- 개별 주당 주어지는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음.
- 단, 위 사항에 불구하고 주주총회 참석권은 모든 주식에 주어짐.
- 주권 발행이 가능하나 기명주식의 형식을 사용하며, 정관에 따라 양수도가 제한될 수도 있음. 민법상 주식양도증서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함.

2) 경영구조

- 연차주주총회 개최(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주들도 참석)
- 대기업이 아닌 한 감사(혹은 비상임이사) 임명이 의무가 아님. 대기업의 경우 감사(혹은 비상임이사) 임명이 의무이며 감사가 이사회

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 주주들은 경영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음.
- 네덜란드 기업지배헌장에 따라 이사회는 남녀 구성 비율이 공개되어야 함.

3) 이윤배당

- 이사회가 이윤배당을 제안하면 주주총회는 이를 의결함.
- 유동성 상황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윤 배당안을 거절할 수 있음.
- 중간 배당이 가능함.

개인사업자

개인이 소유권을 보유한 비법인 사업체로 소유자가 모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공증은 필요 없으며, 상공회의소에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의 부채와 회사의 부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유자 개인의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사가 파산할 경우, 소유자도 파산하게 된다. 만일 소유자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별도의 혼전계약이 없는 한 개인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Zelfstandige Zonder Personeel' 라고 칭하며 이의 약자인 'ZZPer' 이라고도 표기하고 있다.

유럽회사

유럽회사(라틴어 Societas Europaea: 약칭 SE)는 유럽연합 내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를 통칭한다. 유럽연합이 2004년 말 제정한 유럽 기업법(European Company Statue: ECS)에 따라 설립이 가능해진 회사 형태로 기업이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대신 EU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국가 간 M&A 역시 보다 용이하다. SE는 오직 법인만이 설립 가능하며, 개인 투자자는 기업 설립 이후에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유럽회사는 네덜란드 혹은 외국의 주식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으며, 최소설립자본금은 120,000유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국법에 의한 일반 회사와 차이가 없어 유럽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으며, Allianz와 같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이러한 형태로 전환했다.

정식 외국 기업

정식 외국 기업법(FFCA; Formal Foreign Companies Act)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외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됐으나,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네덜란드 국내에서 기업활동의 대부분을 전개하는 기업을 정식 외국 기업(Formal Foreign Company)이라 한다.

정식 외국 기업법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상업 등기(Trade Register)를 신청하고, 기업설립공증서(Deed of Incorporation),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기업 등록번호, 1인 주주인 경우 상세 정보자료를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정식 외국 기업들은 상공회의소에 상업 등기 신청을 할 때, 연차결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경제지역 국가들의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FFCA의 대부분의 조문에서 예외적용을 받는다.

Cooperatie

Coperatie는 네덜란드 민법 공증을 통해 설립되는 협회(Vereniging)의 특별한 형태로서 상법상의 회사로 Co-op이라고도 불린다.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으며 존속을 위해서는 최소 1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Co-op은 주주 대신 회원으로 구성되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와 회원 총회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Co-op을 경영하고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회원 총회는 연차 결산보고서를 채택하며 이익 분배 결의,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진다. 주주가 없으므로 주식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이익의 분배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Co-op은 최소설립자금 없이 설립할 수 있다.

Co-op은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경제주체 간 상호부조와 공익 추구에 있는 한편, 네덜란드 Coop은 설립목적이 회원들의 이익 추구에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수익 배분을 할 수 없는 대신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Co-op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로 보기가 어렵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o De Brauw Blackstone Westbroek

전화번호	+31-20-577-1771
주소	Claude Debussylaan 80, 1082 MD,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debrauw.com
이메일	info@debrau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현지 법무법인

o NautaDutilh

전화번호	+31-20-717-1000
주소	Beethovenstraat 400, 1082 PR,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nautadutilh.com
이메일	amsterdam@nautadutilh.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인 교포 변호사: Bo Ra van der Plas(counsel) - Hoebeke, BoRa.Hoebeke@nautadutilh.com
비고	현지 법무법인

o Loyens & Loeff

전화번호	+31-20-578-5785
주소	Fred. Roeskestraat 100, 1076 ED,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loyensloeff.com
이메일	info@loyensloeff.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현지 법무법인

o Deloitte

전화번호	+31-88-288-2888
주소	Gustav Mahlerlaan 2970, 1081 LA,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현지 회계법인, Korean Services Desk 운영 중

o EY

전화번호	+31-88-407-1000
주소	Antonio Vivaldistraat 150, 1083 HP,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Senior Manager: 강동원(dong.won.kang@nl.ey.com)
비고	회계법인

<자료원 : 당사 홈페이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B.V.) 철수

네덜란드 법인 철수는 기업 해산(dissolution, ontbinding), 자산과 부채의 청산(winding up, liquidation, vereffening) 두 단계로 나뉜다. 기업 해산(dissolution)은 기업 목적의 축소를 의미한다. 기업 해산 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 이외의 사업거래를 할 수 없다. 청산(winding up)은 회계조정(채권자에 대한 지불 포함)을 통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정관에 따른 권리를 가진 주주들에게 재산관리를 정리해 이를 분배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철수할 때 경우에 따라 주주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결의안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법인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법인은 해산 결의안 채택 즉시 소멸된다. 아래의 명시된 철수 절차 과정은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절차이다.

- 주주 총회 결의: 철수 절차는 해산, 자산 청산, 청산인의 임명, 기업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관리자의 임명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시작되며,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 기업에 감사이사회가 있는 경우, 기업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주주 해산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상공회의소에 기업 해산 등록(in liquidatie): 철수 절차 중에 법인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의 상업등록에 기업 해산 중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이 해산되는 순간부터 법인의 모든 문서와 서신, 해당 기업의 발표 및 모든 발간자료 회사 이름과 함께 'In liquidatie'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철수 절차는 기업 해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서 기업 해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업이 등록된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vereffenaar) 임명: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청산인은 주주 총회에서 임명한다. 주주들의 해산안 결의가 만들어진 경우 상공회의소에 경영이사회 구성원의 사임을 통지해야 한다. 기업정관에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나 기업 해산을 위한 별도 청산인 임명에 실패할 경우 경영이사(Managing Director)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청산인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청산인들은 네덜란드 상업 등록에 등기되어야 하며, 경영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청산문(Rekening en verantwoording, liquidation statement) 작성 및 분배 계획: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법인의 모든 부채를 지급한 후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청산인은 청산문(Rekening en verantwoording)을 준비해야 한다. 이 청산문은 청산 잉여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보여주며 청산인이 서명한다. 대개 법인 정관에 누가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며, 잉여금을 받을 권리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균형배분 제공을 위한 분배계획(Plan van verdeling)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자산이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며, 채권자들이 철수절차 진행에 대해 승인하지 않으면 청산인은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 상공회의소에 청산문과 분배계획의 제출: 청산문과 분배계획은 상공회의소에 법인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국 일간지에 발표되어야 한다. 발표 후 2달의 기간 동안 채무자 혹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분배 계획 실행: 2달의 기간이 만료된 후 청산 잉여금은 분배된다. 청산 잉여금 분배에 따라 법인은 더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며 소멸된다. 상업등기 취소 법인 소멸 후 법인은 상공회의소에 상업등기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청산인이나 해당 공증인의 사인을 써넣은 후 청산인이나 해당 공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송부해야 한다.

- 철수 후 기업 기록 관리: 네덜란드 법에 따라 법인 철수 후 7년 동안 계정,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인에 의해(Bewaarder) 보관, 저장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인은 해산결의안 주주총회 시 임명되어야 하며, 네덜란드 상업 등록에 등록되어야 한다. 전면적인 법적 철수 절차는 직원들의 고용계약 종료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통 약 3개월이 걸린다.

- 가속 청산 절차: 위의 청산 절차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공회의소에 기업 해산 등록이 끝나고, 기업의 부채가 모두 정리돼 자산만

남았을 때, 일부 경우는 가속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청산인은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국 일간지에 기업의 청산 사실을 발표한 지 2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 분배(Distribution in advance)'를 할 수 있다. 사전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가정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사전 분배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사전 분배의 대상자들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분배된 자산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2달의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을 때 가속 청산 절차를 밟지만, 만약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사전분배했던 자산은 재분배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자산이 반환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파산

네덜란드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Faillissementswet)으로 규정된다. 기업, 채권자 혹은 검사는 기업의 파산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대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기업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법원은 1명 혹은 그 이상의 파산관재인 (Curator)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인의 모든 자산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청산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재인에게 채권 청구를 해야 한다. 모든 채권자들은 동일한 권리(Paritas Creditorum)를 가지는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먼저 채무변제가 가능하다.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라고도 하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담보를 잡아둘 수 있으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판결이 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냉각기를 설정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활동을 약 2달(추가로 2달 더 연장 가능)간 중지할 수도 있다. 냉각기 이후,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먼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저당 잡힌 자산에 대한 채권 청구를 보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유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경매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이나 담보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와 달리 담보권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선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먼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 비용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다. 법률상 명시된 우선 조건은 물론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계약상 우선 조건 모두 우선채권자로 명명할 수 있는 기초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 무담보 채권자들은 먼저 채권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서 말한 유담보 채권자 및 우선채권자의 채무 상태가 모두 청산되고 나서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6월 네덜란드 국회 하원의원은 파산법 개정에 관해 동의했다. '말없는 관재인(silent curator)'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 개정은 대외적으로는 도산 위험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서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인을 관재인으로 할지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고용인이 파산 전부터 회사의 재정난과 관재인의 존재를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고용인의 개입으로 인해 고객, 고용인, 채무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기업의 재정난 발생 시 파산 확정 전부터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해 고용인의 손해를 줄이고 협의해 파산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네덜란드의 파산 과정 : 네덜란드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Faillissementswet)으로 규정되고, 기업이나 채권자 혹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정하고, 법인의 모든 자산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청산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청구를 해야 한다. 파산 과정은 대개 1년 이상이 걸리며, 네덜란드의 경우 파산 이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초과 지급금(insolvency payment)을 받게 된다. 임금 체납일 경우에는 네덜란드 고용인 보험 에이전시 UWV(Employee Insurance Agency)에서 대신 월급을 지급하고, 회사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UWV에 먼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파산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llissementsdossier.nl/nl/> , <https://www.faillissementen.com/>)

3) 지급정지

기업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지급정지(Surveillance van betaling)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무담보 부채에만 적용되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지급정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임시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채무자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 기간 내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설계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파산 신청의 경우와 유사하다.

법원은 전체 비우선 채무의 1/4 이상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거나, 채무자가 지급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협의가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지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세 경우에 의해 지급정지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대부분 파산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한다. 지급 정지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설계 방안이 법원에서 통과될 경우, 마지막으로 파산에 의해 지급정지가 폐기될 경우 정지된다. 네덜란드 법원 홈페이지(Rechtspraak.nl) 내 중앙 지불 불능 등록부(Centraal Insolventcy Register)를 통해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파산, 자연인 채무자의 부채관리 상태, 지불 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점 철수

지점의 기업해산과 청산은 기업의 본부에서 주관해 행해져야 하며, 상공회의소의 상업등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고용주의 사인이 기재된 상업등기 취소 신청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 = 0.85 유로(2020.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846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98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72
-------------------------	-------	-------------------------	-------	-------------------	-------

<자료원 : rijksoverheid.nl, jobnet.nl,dnb.nl>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Arbeidsovereenkomst)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가, 상대방인 고용주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수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계약서: 고용계약이 존재함(했음)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의무는 아니나, 실제로는 고용계약에서 100% 서면 계약이 이루어짐.
- 해당 기술서(written record): 보통 고용 시작일, 작업 장소, 임금, 휴가 일수, (해직·퇴직·이전 따위의) 예고(통지) 기간,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가리킴. 부정확한(incorrect)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손실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되는 기본사항들
 -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공식) 주소지, 실제 거주지
 - 고용주의 이름, 주소, 실제 거주지
 -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
 - 근로자의 직무 및 역할
 - 고용 시작일
 - 고용계약 기간
 - 휴가 관련 권리
 - 급여액 및 급여지급 기일
 - (주당 혹은 일일) 실제 노동시간
 - 연금 납부에 관한 사항(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적용받는 단체협약(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수습 기간
 - 고용계약 종료 예고 시점
 - 장애 및 질병 시의 사항
 - 회사 집기 등의 상환청구에 관한 사항
 - 신분증명에 관한 사항
 - 사후계약의무 (특수 직종에 한함)

고용계약 중 기간제 계약의 경우, 합의된 기간 혹은 합의된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계약도 법적으로 파기된다. 이전까지는 계약연장 여부에 대한 예고의 의무 없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한 달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합의된 종료기한이 되기 전 고용주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다. 이론상 최대 5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

개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맺는다.

2015년부터 기간제 계약 종료 한 달 전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1달 치 월급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연장 통보 없이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

노동시간 관련, 근로시간법령(Working Hours Act / Arbeidstijdenwet)에 따라 18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1회 최대 12시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와 17세의 청소년, 18세 이상 청소년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각각 제한을 두고 있다. 모든 연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당 8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최저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가

1) 임신 및 출산휴가(Pregnancy and Birth Leave)

총 16주로 해당 기간 사회복지연금에서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임신휴가는 출산 6주 전부터 낼 수 있으며 최소 4주 전에는 시작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언제든지 최소 연속 10주간 낼 수 있다. 배우자(파트너)에게는 아이가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경우, 출산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5주까지 주어진다. 이 때, UWV는 급여의 70%를 지원한다.

2) 육아 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가는 아이가 8살일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낸 달의 급여를 100% 정상 지급해야 한다. 양육휴가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26을 곱한 시간이 최장 양육휴가 기간이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이다.

3) 긴급휴가(Contingency Leave)

법정 의무 이행이나 유산·사산 등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휴가로 고용주는 100%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4) 단기 가족병간호 휴가(Short-Term Compassionate Leave/Kortdurend zorgverlof)

자녀, 배우자, 부모의 간병을 위한 휴가로 최장 주당 근무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최소한 정상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단기 가족간병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와 배우자 간병의 경우 이들의 등록 주거지와 근로자의 주소가 같아야 하나, 부모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장기 가족간병휴가(long-term compassionate leave/langdurend zorgverlof)는 중병을 앓는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를 장기간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휴가이다. 휴가 최대기간은 주당 근무시간의 6배이며 12주 동안 평소 주당 근무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 가족간병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 휴가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2급 친척), 자녀, 직원의 파트너,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상대에 대해 장기 가족간병휴가를 쓸 수 있다.

5) 유급 공휴일

신년 1월 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왕의 날 4월(변동), 예수승천일 5월(변동), 성탄절(12월 25일, 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 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 계약 종료 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해고

직원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직원의 근무 실적과 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영역 변경이 있다. 먼저 근무 실적과 관련해 해고 시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 시스템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문서를 축적해 해고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 시스템과 문서에 대한 현지 법 규정은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2015년 6월 31일까지는 두 경우 모두 고용주가 실업급여기금(UWV) 또는 지방법원 중 한 곳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실업급여기금을 통해 해고하는 경우 명백하게 불합리한 해고가 아닐 경우 고용주의 보상금 지불의무가 없지만, 지방법원을 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015년 7월 1일부터 회사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병가 2년 후 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기금을 통해야 한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실적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반드시 지방법원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과도기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변경됐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했을 경우는 예외
- 군 복부 중일 때. 단, 단체 협약이나 법정 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는 예외
- 출산 8주 전부터 출산 후 16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해고 시에는 반드시 고지(Notice)를 해야 하며, 고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간 5년 미만: 1개월
- 근로기간 5~10년 미만: 2개월
- 근로기간 10~15년 미만: 3개월
- 근로기간 15년 이상: 4개월

퇴직금

하기 특별상황을 제외하고 네덜란드는 특별히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

- 단체협약규정이 적용되는 특수산업일 경우
- 고용주가 단체협약규정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규정했을 경우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네덜란드의 의료보험(Zorgverzekeringswet; ZVW)은 급여, 연금, 수당, 자영업자의 소득, 자녀양육비 등 ‘소득’을 얻는 자는 의료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으며, 이때 소득 수준에 따라 내야 하는 의료보험료도 달라진다. 2021년 기준, 근로자는 순(net) 급여의 7%를 의료보험료로 내게 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고용보험

네덜란드에는 WW (Werkloosheidsuitkering)라는 실업보험이 있다. 2020년 9월 기준 네덜란드 내 총 278,000명이 WW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네덜란드 고용보험공단 UWV 소속 구직 상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업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6주 중 최소 26주간 고용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26 out of 36 weeks'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8개월까지 보장받게 되며, 첫 2개월은 급여의 75%, 3개월부터는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산재보험

네덜란드에서 산재보험이 의무는 아니지만, 점차 산재보험이 단체노동협약에 포함되어가는 추세이다. 보험료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고용인 1인당 최소 월 2.50유로로 조사되었다. 고용주는 24시간 보장과 근무 및 통근 시간만 보장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나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중 장애 및 후유 발생 시 재활비용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네덜란드의 국민보험제도에는 노령연금(AOW, '일반연금'으로도 불림), 유족 연금(ANW), 특별의료비연금(AWBZ)이 있다. 노령연금은 순 급여의 17.9%, 유족 연금은 0.6%, 특별의료비연금 12.65%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는 아동수당(AKW)도 지급되나, 보험료를 징수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보험제도 외에 피용자(근로자)에 대한 보험제도도 있는데, 여기에는 실업연금보험(WW), 피용자 근로장애연금보험(WIA), 의료보험(ZVW)이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부과되거나, 외국 법인의 네덜란드 내 상설 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네덜란드의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 200,000유로를 기준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2018년 9월 왕자의 날에 발표된 세제 계획에 따르면, 기존 소득 200,000유로 이하 기업에 부과되던 세율이 20%에서 19%로 조정되었고, 2020년 16.5%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15%로 다시 하향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200,000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소득세는 2020년 25%에서 2021년에는 21.7%까지 줄어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해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소득 그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군 소득은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1) 과세 대상 소득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기초 차감액 2,711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 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는 2개의 소득세율 구간이 있고 정년인 66세 4개월(네덜란드는 매년 3개월씩 법정정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66세 7개월까지 연장될 것임)부터는 별도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소득 수준(65세 이하)에 따른 세율 규정이다.

- 0유로~68,507유로 미만 : 37.35%
- 68,507유로 이상 : 49.50%

2) 2군 소득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2군 소득은 25만 유로 이하일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5만 유로 이상일 경우 26.25%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소유한 기업지분이 전체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한정된다.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25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26.9%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3) 3군 소득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의 순자산(자산-부채)에서 기초차감액(21,139유로*과세인원)을 차감한 금액의 4%를 과세대상으로 보며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19년 기준 30,360유로의 순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파트너

가 있는 경우 60,720유로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 단계마다 부과하게 돼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만(매출 부가세), 구매 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후 해당 기업은 세무 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며,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 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됐으며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2019년 6%에서 9%로 상향 조정하였다. 해당 재화에는 식품, 물, 농업용 제품(사료, 종자 등), 의약품,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서적 및 잡지, 원예용 가스·광물성 연료 등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는 자전거 수리, 신발·가죽제품 수선, 의류·린넨 수선, 이발, 주거지 관련 노동(회벽칠 등), 캠핑장 제공, 주거지 제공, 문화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대중예술 활동(춤, 음악, 디제잉, 캐리커처 등), 수영장 및 사우나 포함 스포츠, 승객운송, 농업 용역 등이 있다. 2019년부터 스포츠 경기·동물원·서커스 입장료 등에도 21% 아닌 9%의 부가세가 적용되었다.

특별소비세

없음

추가세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500KM 이상 주행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세금이 존재한다. 추가세금은 CO2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일괄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솔린,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 22% 추가

전기차 : (차 가격 40,000유로 까지) 12%, (40,000만 유로 이상) 22% 추가

수소차 : 4% 추가

양도소득세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구입 및 매각 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 표준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2%이지만 기업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네덜란드는 외환 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나 사안별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유로화가 네덜란드 공용통화로 결정된 1999년 1월 1일부로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유로화는 현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유로존 내 자금이체, 신용카드·직불카드 대금결제에 대해 유럽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국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는 SEPA(Single Euro Payment Area)라고 불리는 단일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chip and pin' 카드를 통한 대금결제, IBAN코드에 의거한 자금이체 방식을 골자로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4년 말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SEPA로의 이행률이 95%에 다다랐다.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도 은행별 계좌번호가 아닌 IBAN코드에 의거한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있으나 진행속도가 비교적 느려 네덜란드 재무부에서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의무시행 한도를 2016년으로 연장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 정해진 기한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SEPA 시스템은 일괄 시행된 상태이다.

유로화는 2002년 1월부터 본격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 1월까지 중앙은행에서 과거 길더(guild/gulden)화 주화를 교환해주었다. 유로화는 2032년 1월까지 길더화로 계속 교환해줄 예정이나 소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상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6년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최고액권인 500 유로권 지폐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7개 회원국은 지난 1월부터 500 유로권 지폐의 발행을 중단했다. 그동안 500 유로권 지폐는 유로존의 다른 회원국보다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인기가 높아 더 많이 유통되어왔다. 현지의 대부분 현금인출기에서는 50유로 이상의 고액권은 찾기 어려우며 은행 창구에 직접 요청을 해야 100유로, 200유로권 지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상점에서 고액권을 잘 받지 않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환 규제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규제도 없으나 자국 내 비거주자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차관 중 총금액이 4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과 상환 또한 자유로우며 이 경우 소득세도 면제된다.

주식 배당 이익에 대한 송금도 제한이 없으나 다만 26.5% 소득세율의 적용('21년부터는 26.9%)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송금 국가가 네덜란드와 조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25%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EU 가입국 간의 배당 이익은 종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배당세가 보류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같은 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세를 공제할 수 있다. 배당세는 배당금을 받는 순간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보통 배당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배당금 원천과세율은 최고 15%가 적용되는데,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네덜란드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해당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 제한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내국법에 의해 0%가 적용된다.

외국 기업들 또한 네덜란드 내국 기업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EU 회원국 기업의 경우 자국 기업과 반드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강제 규정돼 있다. 외국 기업들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로 송금할 수도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자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De Nederlandsche Bank(DNB)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서는 금액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balance-of-payments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의 외환 송금 중 5만 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 DNB에 통보돼야 하며 송금 시 이용 은행에 구비돼 있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 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금 세탁을 방지코자 EU 위원회에서 제정한 “자금세탁 방지조항(Directive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91/308/EEC)”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사이 개정된 EU 규정 또한 2007년 6월 15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만 5,0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현금 송금에 적용된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네덜란드는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발맞추어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재산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에서 발표한 2020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

특허법으로는 새로운 기술제품·기술공정의 발명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네덜란드는 베네룩스협약에 기한 상표 및 디자인법으로 기업가의 재화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sign) 등을 보호하고 제품의 2차원 혹은 3차원 외관 형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을 통하여 문학, 학술,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법을 통하여 실연자(연주자, 배우, 댄서 등),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외에도 상호권, 데이터베이스권, 식물 품종보호권 등을 인정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이름, DB에 대한 재산권,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네덜란드 인구는 약 1,747만 명으로, 매년 평균 0.6%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하는 약 16%, 15~30세 인구는 약 19%, 30~65세 인구는 약 46%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기준 노동 인구는 920만 명이며, 평균 연령은 42세이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2018~2019년간 4.0% 성장하여 54,909달러를 기록했다.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소비 성향

1) 근검절약의 실용적 소비 패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곳이 네덜란드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에 따라 제품 구매 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ING은행 경제연구기관(ING Economisch Bureau)은 불황을 겪으며 소비재 시장이 가치소비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양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치소비 시장은 대량의 제품을 적은 이윤으로 운영하면서도 혁신과 기술력을 동원해 품질을 유지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초저가 유통망 Action 또는 대형 할인매장 Op=op Voordeelshop 등이 네덜란드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초저가 유통망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인 가격인하정책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가제품의 시장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 네덜란드인들의 근검절약 소비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할인점 매출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네덜란드의 할인점 매장 수가 금융위기 이전 보다 75% 증가한 바 있다.

2) 필요할 때는 지갑을 연다

네덜란드 가정에는 통상 1인당 1.1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한 대는 출퇴근용으로 매우 저렴하거나 낡을 때까지 낡아서 분실이나 고장이 나더라도 금전적 손실이 적은 자전거이고, 하나는 주말 가족 나들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자전거이다. 출퇴근용 자전거는 대개 중고일 경우 100~130유로, 새 자전거일 경우 200~400유로 정도이다. 그러나 주말용 자전거의 경우 GAZELLE, GIANT, BATAVUS 등 현지 인기 브랜드 자전거가 통상 500~2,000유로를 호가하는 고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운동용 사이클의 경우 최소 700~3,000유로 선까지 다양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

평소 자린고비로 유명한 네덜란드인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의 월평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선뜻 할애하고 있다. 또한 기후의 영향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성 때문에 TV 시청을 즐기는데, 이를 위해서 고가의 LCD TV 구매도 늘고 있는 등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의 제품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2개 사면 3개 받기(Drie Halen, Twee Betalen)'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은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고자 한다. 따라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보다는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이 쉬운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늘기도 했다.

3) 다(多)취향 소비패턴

네덜란드는 전 국민의 1/5이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지 않은 비자국민이며, 1/5 중에서도 네덜란드 국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만 70만 명이 넘는 다인종 국가다. 따라서 각각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며 각자 다양한 트렌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터키계, 모로코계, 수리남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및 아루바계(통칭 TMSA 그룹)는 전체 이민자의 36%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토종 네덜란드인들이 실용주의를 고집한다면, 이들 이민자그룹은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 장신구를 선호하고 비싼 브랜드의 의류나 액세서리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할랄 푸드(Halal Food)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4) 풍부한 구매력을 보유한 실버층

네덜란드인들은 통상 65세 전후에 정년을 맞게 되며, 이후에는 정부 및 개인연금, 그 외 투자소득으로 생활하게 된다. 20세 전후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노년층은 부부 단위로 생활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노인들은 필요한 부분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고 있게 된다. 의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노년층은 의류 등 주로 생활소비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며, 여타 소비자층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5) 네덜란드인이 지갑을 여는 쇼핑 시즌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엔 신터클라스(12월 5일), 크리스마스, 연말 불꽃놀이, 여름엔 휴가비 수령시즌이 대목 시즌이다. 신터클라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관습 덕에 이미 11월 초 장난감 구매가 시작되며, 신터클라스날을 기점으로 네덜란드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연말 준비,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된다. 패밀리맨 성향이 강한 네덜란드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디너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며, 이 때만큼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각종 리빙 데코레이션에 정성을 들인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데코레이션 제품, 테이블 장식, 조명 제품에 대한 소비가 일어난다. 다만, 2020년 올해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해외휴가 자제와 불꽃놀이 금지 조치로 인해 관련한 소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봉의 8%에 해당하는 여름 휴가비를 대부분 5월에 한꺼번에 받는데, 네덜란드 직장인들은 고가제품은 5월까지 기다리다가 여름 휴가비를 받으면 지출하고는 한다. 이 시기 제일 많이 지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이며 주요 전자제품 유통망들은 이 시기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 시즌도 대목이다. 네덜란드는 흔히 자국 축구팀 선수들을 '오렌지(군단)'이라고 칭하는데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다양한 오렌지색 제품이 출시되며, 특히 식품시장(케익, 맥주, 스낵류 등)과 TV 시장의 매출이 상승한다.

6) SNS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증가세

소비 경기가 악화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아는 사람들이 써봤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들어본 사회적으로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의류 생활잡화 산업조합(CBW MITEX)과 소매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인 6명 중 1명은 소비한 상점에 대해 후기를 남기며, 3명 중 1명은 후기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50% 이상의 소비자가 다른 사용자의 후기에 의존해 소비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블로그의 포스트와 코멘트, 포럼의 토론, 리뷰 사이트의 점수 등 다양하게 후기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럼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한 사용 후기의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소비자 경험 향상을 중요시하며 옴니채널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공적인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결합하고, 소비자에게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7) 지속 가능성, 선택이 아닌 필수

네덜란드 내에서 식품 원산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식품이 생산-운송-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의미하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탄소배출량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주면서 네덜란드 내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근교에서 재배·생산된 식재료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은 유기농 식품 판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유기농 식품 소매 판매액은 8억 4,000만 유로로 유럽 국가 중 10위를 차지했으며, 성장률은 5.4%로 유럽 국가 중 7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유기농 전문점의 점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판매 제품 또한 다양해져 유기농, 친환경 식품뿐 아니라 유기농 삼푸, 보디워시 등을 비롯한 기초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생활용품 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은 슈퍼마켓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 장바구니 판매, 조폐를 통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금 미사용 정책, 일정 구매액 이상 소비자들을 위한 자전거 박스(크레이트) 판매 정책 등이 그 예이다.

패션업계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청바지를 대여하는 청바지 빌리기(Lease a Jean)는 재활용 가능한 유기농 섬유로 만든 청바지를 대여해주고 낡은 청바지를 재활용한다. Nyvidd는 연어, 대구, 농어 등 생선 비늘로 가죽을 만든다. 어류 가죽은 재사용되어 액세서리 및 의류로 쓰일 수 있다. 대형 의류 브랜드들도 저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소재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의류를 생산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CSR 네트워크인 MVO Nederland는 'CSR Trend Report'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격과 품질 등 경제적 요인이 제품을 선택하는 일차적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인권, 환경, 동물, 기후나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돈을 쓸 때는 저렴하고 편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시민과 소비자의 역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제품은 굳이 '지속가능성'의 특징만을 내세우지 않고, 기본적인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8) 공유경제로의 전환

지속 가능성의 연장 선상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와 '소유'의 개념을 넘어 자신이 소비한 것을 타인과 공유해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자동차와 집은 물론 캡슐 커피머신, 카메라 렌즈, 공구 등에서부터 의류나 가방까지 다양한 품목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공유경제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Thuisafgehaald(www.thuisafgehaald.nl) 사이트는 완성된 음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조리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Floop2(www.floop2.com) 사이트에서는 B2B로 농업, 건설업과 관련된 중장비 및 기타 산업 장비 등을 빌릴 수 있다. Peerby는 제품 P2P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특정 제품을 공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다. 차량을 단기간 렌트할 수 있는 플랫폼도 Snappcar, MyWheels, Toogethr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네덜란드 자전거 대여 서비스 기업 Swapfiets(swapfiets.nl)는 월 19.50유로의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대여해준다. 현재 네덜란드 15개 도시를 비롯한 3개국 22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여 기간 중 발생하는 자전거 하자는 물론 타이어 교환, 수리 등 각종 부수적인 수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주문이 밀려 제품 수량이 2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Regus는 120개국 3,000여 개의 사무실 대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장이 많은 근무자를 타기 위해 비즈니스용 가상주소 제공, 사업자 번호등록 및 전화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이 있는 사무실은 시간당 8.2유로, 건물 안쪽 사무실은 시간당 7.8유로, 개방사무실은 6.6유로, 가상 사무실은 시간당 2.47유로에 대여할 수 있다.

9) 현금보다 직불카드 선호

네덜란드의 소비자들과 상점들이 현금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과 상점들 모두 현금 결제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출한다는 인식과 다소 구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직불카드(핀카드)로 지출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금이 사용되던 분야도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5일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집집마다 방문해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들도 무선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다닌다. 직불카드가 매우 활성화되다 보니 최근에는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결제할 수 있는 상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CoTee Company의 일부 지점이나 슈퍼마켓 Marqt, 우체국 등에서는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는다.

2014년 4월부터 은행 직불카드에 본격적으로 NFC 칩이 부착됐다. 2014년 7월부터는 버스, 트램, 기차를 탈 때 NFC를 탑재한 카드만 사용해야 하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일회용 NFC 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직불카드에 NFC를 탑재하는 것과 더불어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에서 PIN을 통해 현금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 이후 Arriva 등 일부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에서는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나서는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 결제만 허용되는 상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이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한국 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게 흠이라고 평가한다.

네덜란드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은 삼성, LG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전제품, 모바일 제품과 SUV를 중심으로 하는 승용차, 건설 중장비 등이 있다. 네덜란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시장점유율 4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LG전자는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2019년 기준 네덜란드 내 신차 판매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5.6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셋톱박스 등 IT 기술력을 앞세운 제품들이 네덜란드에 공급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은 KPN, TELE 2 등 현지 유력 케이블, 인터넷 공급업체에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기도 하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 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식료품점 Amazing Oriental은 2018년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Duivendrecht에서 한국 음식 요리 시연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전역에는 현재 20여 개의 한국 레스토랑이 있다.

한류는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한국에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20대를 중심으로 자생 한류 단체가 만들어져 SNS와 한류행사를 통해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K-pop을 넘어 K-movie, K-drama, K-food 등으로 관심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3년 8월 발족한 한류콘(facebook.nl/hallyuconNL) SNS 페이지는 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로테르담에서 'Kimchi Fair(한국문화 알리기 및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해 270여 명의 유료관람객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한류콘은 2015년 8월 7일부터 2박 3일간 제2회 한류 캠프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내 K-Pop의 인기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월 암스테르담에서 지드래곤, 혁오가 각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18년 4월 암스테르담에서 랜드오브피스, 최고은, 새소년이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2018년 가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몬스타엑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한국영화 부문에서는 2015년 제44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회고전'을 통해 장진 감독이 12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4년 디지털 삼인 삼색 프로젝트인 박정범 감독의 '산다', 이광국 감독의 '꿈보다 해몽', 김태용 감독의 '거인' 등 총 19편의 한국영화가 초청됐다. 국제영화제 이외에도 아시아 영화 페스티벌 등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개봉된 작품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있다. 2014년 4월 3일 영화관 Pathe에서 개봉했으며 약 2주간 상영됐다. 2019년 11월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네덜란드의 대금 결제방식은 기존 L/C 거래에서 점차 신용거래로 변화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외상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T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계약을 추진한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은행에 현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계약의 경우 바이어들의 상당수가 외상거래 또는 TT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TT 거래나 유산스(USANCE) 거래 시는 수출자나 수입자 중 어느 일방이 전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초기 거래 시 선뜻 이런 결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전통적인 상인 정신의 기질로 인해 비즈니스 활동 무대가 네덜란드로 한정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 시 유럽 전역 또는 베네룩스 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한국업체 입장에서는 최소 연 매출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 에이전트를 내주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독점 에이전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1년 정도의 한정된 기한 동안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절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상담 시 최소주문수량(MOQ)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샘플 오더 수준의 주문만을 하길 원하면서, 그 이유를 네덜란드 시장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최소주문 수량을 고집하기보다는 타 국가의 바이어 주문 수량을 합해 고려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거래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바이어들은 커뮤니케이션 시 요청사항에 대해 무조건 'yes'라 답한 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 아시아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질렸다고 말할 정도이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에게는 안정된 품질 공급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업체인지 아닌지가 거래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 영업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이어를 물색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려는 물건을 단 한 개라도 쓰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어떤 잠재 가능성이 있을지 관찰력을 가지고 탐색해야 한다. 또한, 구매결정자와의 대화 뿐 아니라 납품하려는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부서는 물론 조금이라도 관계가 된 인물이라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어 정보를 얻고, 바이어와의 면담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사말과 대화가 오고 간 후 "○○○가 이런 면이 불편하다고 하시던데..."로 운을 댄다면 면담자는 대화에 훨씬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혹은 바이어에게 불편한 점을 물었을 때 바이어가 끔찍한 점들을 놓치지 말고 "저희 제품이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 제품은 그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개발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솔루션 제안'타입의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두 번째 면담을 잡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바이어와 면담을 잡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업체에 접촉해 담당자를 찾고 면담 약속을 잡는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첫 유선 접촉이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면 상심하지 말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혹시라도 우리 제품이 향후에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라도 얘기를 나눌 시간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 "안 될 거야 없겠지만, 지금은 바쁘다"는 대답에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점잖고 유쾌한 방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한 뒤 시간을 둔 후 다시 접촉한다. 다음에도 바쁘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접촉하는 식의 과정을 2~3번 거치면 대부분 면담 성사가 가능하다. 일단 면담 약속을 잡는 데 성공해도 바이어가 곧바로 당신의 제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리라는 기대를 버리고 대화를 이어가며 자사의 제품이 지닌 플러스알파를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한다. 바이어에게 제품을 얼마나 어필하느냐에 따라 주문량이 예상외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면담 초기에는 구매량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면담을 할 때 바이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그 회사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으니 우리 제품을 쓰세요'라는 식의 네거티브적인 설득 방법은 바이어의 판단력에 대한 비난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제품도 충분히 어느 정도 기능은 하고 있지만, 저희 제품은 덧붙여 추가 기능이 있으니 저희 제품으로 플러스알파를 노려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 회사 제품이 애초 의도하셨던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 제품이 보완하고 있으므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 바이어의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포지티브한 설득방법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설득의 포인트는 문제해결형 제안으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와 고객의 문제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면, 교신 지속 가능성이나 영업 성사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무역 사기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네덜란드인이 정직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이용한 무역 사기 행위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 군사정권 시절 축적 자금을 언급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은행 간 상호계약 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금을 요구하던 단순방식에서 벗어나 위조된 상공회의소 등록문서를 보내오거나, 직접 한국 회사를 방문해 미팅을 가진 후 중국 회사를 통해 제품을 저가 복제 생산하는 등 과감하고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기업과 첫 거래 시 무역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vk.nl)에서 해당 네덜란드 기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극소규모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나 명함의 비즈니스 이름과 홈페이지 상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등록 여부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이어에 직접 문의한다. 또한 "이제 곧 하려는 참이다", "등록을 수정하고 있다.", "거래가 발생하면 하려고 했다." 등 애매한 변명을 하는 경우 거래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 등록 사실이 해당 바이어의 신뢰성을 입증하지는 않으므로 등록 시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발생 1년 안에 등록된 업체라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록-말소, 다른 이름으로 등록-말소의 절차를 빈번하게 반복한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움직임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네덜란드식 이름이 아닌 아시아계나 중동, 미국 등 타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네덜란드에 확실한 연고를 두고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사례가 맞는지 철저한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그러나 현지 바이어인 경우에도 백인 바이어를 신뢰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백인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신분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행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극소규모의 현지 기업에 수출거래를 결정할 경우, 대금의 상당 부분을 CAD(또는 COD) 형태로 지불하는 조건을 포함해 전액 후불이 아닌 계약 시, 선적 시, 도착 시 등으로 대금을 나누어 치르는 등 조심스러운 거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추천한다. 또한, 최초 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경우 두 번째 거래부터 조건을 점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극소 규모이고 최초 거래이면서 100% 후불 혹은 50% 이상 후불을 고집하는 경우 사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공급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 선적 과정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좌번호 변경 등 바이어가 평소와 다른 연락을 해 오면 대금 납부 전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현지 무역관 담당자를 통한 문의 및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거래처와의 계좌변경, 거래 내용 변경을 통보할 때는 이메일과 함께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바이어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취약한 대규모 포털 이메일보다는 회사 사내 자체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비즈니스 상담에서 성공하기

○ 상담 전 준비사항

네덜란드 상인은 협상에 대단히 능하며 사소한 일에도 냉정한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은 거래자 간의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규 판로 개척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 번 거래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숙지하기 때문에 상담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의 경우도 해당 제품에 대해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철저한 지식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해외마케팅이 그러하듯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는 네덜란드에서 더욱 필수적이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 80%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별도의 네덜란드어로 된 자료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문 자료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가끔 국문 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들은 쉽게 관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영문 카탈로그 제작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덜란드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에 대해 기업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 시 가능하다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신뢰를 하게 하는 데 유리하며, 내용 중 오타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납기 준수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신뢰도는 공급선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소개서는 바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물이다. 기업 소개서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 시설 등의 사진이 들어가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명 특허이나 신제품 생산능력 등 자기 회사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회사 소개서 제작이 어렵다면 회사 약사, 직원 수 등 기초정보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 카탈로그와 같이 제작돼도 무방하다.

- 첫 접촉 시 Price List 송부는 금물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접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접촉 시 가격 리스트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공급업체가 대뜸 가격 리스트를 보내왔을 경우, 대부분의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모든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쯤으로 여기며,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 리스트를 배포한 업체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의 혹독한 가격 할인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역시 첫 번째 메일링에 동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볼펜, 열쇠고리 등 저가품이 아니라면 좀 더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역원 활용도 고려

네덜란드인들의 영어 실력은 비영어권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협상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통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네덜란드어-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원의 경우 1일 기준(오전 9시~오후 5시) 약 250유로 수준이며 무역관 홈페이지에 언급돼 있는 여행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 품질 대비 가격 민감도 급격히 상승

비즈니스 중개 사이트 및 가격 비교 사이트의 활성화와 유무선 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장에서 제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해 모든 정보가 거의 투명해졌다. 그리고 제조기술의 발달과 표준화로 인해 점차 품질 대비 가격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다. 상담할 때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신제품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혹은 동일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내놓으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므로 바이어와 상담할 때에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바이어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성향을 고려한 메일 작성

- 효과적인 제목 정하기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첫 단추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이메일은 제품 공급 담당자의 언어구사능력, 업무진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첫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메일 수신자 및 회사명의 철자 등을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하지 않은 효과적인 제목을 통해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타 유럽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네덜란드인들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감상적인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한눈에 메일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완전한 문장보다는 절, 구, 단어로 이루어진 간결한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해관계에 앞서 신뢰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메일 교신을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첫 단계쯤으로 생각하고, 바이어로 하여금 제품 소개 메일임을 100% 확신케 할 필요는 없다. 상업적인 목적이

너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바이어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 메일 내용 작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네덜란드인들의 성향만큼이나 그들은 실용적이고 명확한 이메일 내용을 선호한다. 되도록이면 형식적인 인사말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한 본인 소개 후 바로 회사 소개 및 제품 소개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해당 바이어가 매일 다수의 제품 소개 메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간단명료하면서 차별화된 특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 모호한 표현, 과도한 미사여구를 지양하고 인증 여부, 통계 수치 등 사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타사의 제품을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홍보 방식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폰트 및 글자 크기는 되도록 통일을 시키고 Georgia 혹은 Cambria 등의 폰트가 무난하다.

- 파일 첨부 및 끝 인사

파일을 첨부할 경우 간결한 영문 제목을 설정하되, 바이어가 따로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한국) 업체명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제품 정보를 첨부 파일로 대신하더라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는 메일 본문에 미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가 요청한 파일이 아니라면, 현지의 인터넷 속도를 감안해 파일 용량이 가급적 1MB 이하, 최대 3MB를 넘지 않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거나, 유럽 출장 예정이라면 미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맺음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I look forward to your reply. If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feel free to contact me.)' 등이 적절하다. 끝인사를 적을 경우 Sincerely Yours, Best Regards/ Kind Regards 등 가능한 정형화 된 인사말을 사용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W과 같은 줄임 인사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미사여구를 사용해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4) 네덜란드 기업문화(미팅문화)

- 미팅 시간 엄수는 필수

네덜란드인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신의 노동력(금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 매우 싫어한다. 5분 이상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 바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예의이다. 뿐만 아니라 미팅 종료시간에 대한 관념도 정확하다. 미팅의 안건에서 벗어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예정된 미팅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급히 미팅을 마치려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스케줄이 꽉 차있는 고위급 인사의 경우 미팅 종료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야기 중간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 바로 본론으로 돌입

네덜란드인들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편이다. 네덜란드 사회에서 단순 명료함은 솔직하고 분명함을 뜻하며, 때때로 이러한 태도가 투명스럽게 보일 때도 있을 정도이다.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회사 소개와 미팅의 목적 설명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교적인 인사말(small talk)에 사용하며, 최대한 빨리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 회사를 직접 방문할 경우 미팅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커피를 대접하며, 회사 내의 커피머신으로 같이 커피를 뽑으러 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 간혹 소기업은 커피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미팅하기 위해 앉자마자 '방문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이성적으로 협상하라

네덜란드인들은 직관과 감정을 믿기보다 수치와 사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제안 시 항상 근거를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정 표시를 하거나 고성을 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며, 불합리한 처사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할 때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의견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인들은 협상 시 '제안 → 대안(Counter Offer) → 대안(Counter Offer) → ... → 합의'의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며 대안을 제시할 때 근거를 이용한 토론 방식을 자연스럽게

럽게 여긴다.

- 수평적인 관계를 당연시

네덜란드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문화를 추구하므로 회의장에 있는 누구라도 발언권이 주어지며, 보통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이의 동의를 얻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이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러 명과 미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상급자에게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에티켓이다. 보통 처음 보는 경우에는 Mr./Mrs./Miss/Ms. 등을 앞에 붙여서 성을 부른다. 영어에서 종종 학식 있는 사람에 대한 존칭을 나타내기 위해 Dr.를 쓰는 반면, 네덜란드에서 doctorandus(drs.)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미팅에서 서로의 이름(First name)을 부르기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상급자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팅 상대방이 이름을 불렀다고 성급하게 불쾌한 표시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팅 상대방으로부터 이름만 적힌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미팅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아주 크거나 격식을 차린 미팅일 경우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일 때도 있다.

- 방문 약속은 최소 한 달의 여유를 둘 것

네덜란드에서는 친구 및 친척 간 방문할 때에도 미리 정확한 시간을 잡아 약속하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더욱더 사전 약속이 중요하며 최소 한 달 전에 연락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방문 사안에 따라 바이어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사전 notice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이어 측에서 미팅에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이 없을 경우, 자사(혹은 개인) 스케줄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notice 기간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을 바꾸려 하는 것은 professional 하지 않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위신이 훼손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부담을 지기보다는 바로 거절하는 편을 선호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업무 소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 'Yes'는 말 그대로 'Yes'

만약 네덜란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해 그가 Yes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예의상 Yes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다툼이나 토론 혹은 불화를 피하고 싶어서 Yes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Yes'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쉽게 'Yes'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약속을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대화할 때 'Yes'라는 대답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사 및 복장

비즈니스 관계로 만날 경우 양복을 입으며 넥타이는 공식적인 행사 등에 참여할 때 매고, 개별 상담 또는 비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네덜란드인들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장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가급적 정장 차림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방도 꼭 넥타이에 정장을 매고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에서는 악수하면서 상대방과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살짝 잡았다 놓는 식으로 악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개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악수를 하는 편으로, 이는 자신이 뒷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문화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다. 직장을 구할 때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등의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힘찬 악수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상대방의 손을 정확하게 맞잡고 힘차게 2~3번 위아래로 흔들며 가볍지만 강한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간단한 미소를 짓는 것이 경중한 방식이다. 인사를 할 때 이름을 말하며 악수를 하면 되는데 악수를 하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프랑스의 비유와 같이 네덜란드에도 더치키스라는 인사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뺨에 번갈아 가며 가벼운 '쪽' 소리를 내는 것이다. 서로 이미 친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인사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악수하지 않기'는 네덜란드 정부의 주요 위생/안전 수칙인 만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악수가 아닌 팔꿈치 부딪히기 정도로 대신하고 있다.

2) 식사

비즈니스 미팅과 관련해서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점심을 같이할 경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다. 미팅 후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나 술자리 제안은 선호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인들은 비즈니스 관련 식사나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이런 자리보다는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운전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집에 초대받았을 경우에는 대접받은 음식을 모두 끝내는 편이 좋다. 네덜란드인들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면 불쾌해할 수도 있다.

3) 선물 관행

비즈니스 미팅 시 선물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만 간단히 성의 표시하는 것이 좋다. 주로 와인, (한국을 나타내는) 기념품 등이 적합하다.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초콜릿, 화분, 책, 꽃 등을 선물한다. 꽃 중 하얀 백합이나 국화는 장례식을 의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주인이 이미 와인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선물할 필요는 없다. 칼(knives)이나 가위는 선물로 부적합하다. 비즈니스 미팅 상대자에게 성의 표시를 할 때는 상급자와 하급자 구분 없이 동등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들에게 와인이나 꽃, 카드 등을 보내기도 한다. 크리스마스나 신년인사 카드 안에는 별도의 축하인사를 적지 않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적어 보내는 경우가 많다.

4) 네트워킹 리셉션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세미나, 전시회 등 비즈니스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네트워킹 리셉션은 빠질 수 없는 순서 중의 하나이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조심하며 대화한다면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화를 "화장실을 가야 해서"라고 끝내기
- 자기소개 없이 이야기 무리에 끼어들기
- 대화 상대방의 이름, 결혼 여부, 직업, 환경 등을 추측
- 한 사람과 저녁 내내 대화하기
- 대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전화받기
- 잘 알지 못하는 장관, CEO, 왕족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기
- 술에 취하기
- 방울토마토를 한입 가득 먹기, 베어먹은 스낵을 다시 소스에 찍어 먹기

5) 적합한 방문 시기

여름(7, 8월)은 대부분이 휴가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서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인들은 연간 약 25~30일의 휴가를 받는데, 주로 7~8월 중에 여름휴가를 10~15일 사용해 2~3주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부활절 전후 1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 부활절이 있는 4월 말(매년 바뀜),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는 현지 비즈니스 방문에 적합하지 않다.

일부는 1월에 스키 휴가를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과 미팅 약속을 잡기 전에 바이어의 휴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인들은 장기간의 휴가가 잦아 업무 연락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바이어가 해당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해 놓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자주 발생한다. 때로는 우리 기업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휴가로 인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의사결정에 시간 걸리는 점 등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비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거래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방문을 위한 약속은 2주~1달 전에 미리 잡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문 약속을 촉박하게 잡을 경우 원하는 시간에 미팅하지 못하고 짧게 끝나야 하거나, 약속을 아예 잡지 못할 확률이 높다. 방문 약속을 잡은 후에는 약속 장소, 시간, 참석자, 방문 주제를 담은 확인 메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철저한 시간관념

네덜란드인들은 대체로 시간 약속에 대한 관념이 철저하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 등의 형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 시간을 지키는 것은 비즈니스맨들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팅 참석 시 예정보다 늦을 것 같을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하는 편이 좋다.

네덜란드인들은 식순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민감한 편이어서 비즈니스 미팅 시 정해진 식순대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의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프로그램 및 식순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프로그램의 진행을 주도한다. 모든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해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면, 호스트에게 미리 몇 시쯤 도착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제시간에 가는 것을 권장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SK 루브리컨츠(SK Lubricants)

SK Lubricants의 유럽 진출 역사는 15년이며, 애초 유럽(네덜란드)에 에이전시를 두었다가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현지 관리나 통관 혹은 문제 해결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다.

SK Lubricants가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물류적 이점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괄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제품인 고급기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탱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로테르담에 소재한 고품질 탱크저장 시설업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네덜란드를 진출 거점으로 선택하게 됐다.

일반 윤활유의 원료인 광유계 기유의 경우 황 함량과 점도지수에 따라 Group I, II, III로 분류되며, 그 중 점도지수가 높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윤활기유는 Group III이다. SK Lubricants는 Group III 윤활기유 시장에서 유럽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급 윤활기유 시장은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신뢰관계 형성, 안정적인 공급이 시장경쟁력을 판가름하는데, 현지화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신뢰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한솔그룹에 속해있는 기업으로서 종이의 원료와 종이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회사이다. 한솔제지는 2012년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장양공자에 대규모 감열지(영수증 롤(Roll)) 생산설비 투자를 단행해 세계 3위의 감열지 제조업체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2013년 POS(Point of Sales)용 감열지를 가공·유통하는 덴마크의 샤데스(Schades, Skive 소재)를 인수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2013년 덴마크의 샤데스를 인수한 후 유럽 사무실을 먼저 독일 뒤셀도르프(Dusseldorf)에 개소했다. 덴마크 샤데스가 소재한 도시 Skive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활과 자녀교육 여건을 고려해 독일 뒤셀도르프에 개소한 것이다.

이후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네덜란드의 라벨링 최대 생산·공급업체인 텔롤(Telrol, Almere 소재)을 2014년에 인수하면서 네덜란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텔롤사는 연 매출 600억 원을 기록하는 라벨 가공·유통 부문 1위 업체로 네덜란드 라벨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한솔제지는 텔롤사를 인수하면서 감열지 사업부문에서 생산과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화된 체제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뒀다. 또한, 텔롤사를 인수하면서 2014년 유럽 판매 법인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네덜란드로 옮겼다.

이후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주선으로 한국인 전문 상담 창구(Korean Desk)가 있는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효율적으로 미팅할 수 있었다. 현지 지원 회사들과 네덜란드 거점의 설립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그 외의 사무실 입지, 현지직원 구인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사무실을 개소하며 입지에 대한 큰 문제가 해결돼 한솔 유럽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 것으로 평가된다.

3) 인바디(InBody Europe BV)

인바디 사는 생체분석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인바디는 유럽진출 거점 후보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선정해, 2015년 3월 네덜란드 출장 사전조사를 시행했다. 사전 조사 이후, Brexit 등 위험요소가 있는 영국, 기존 대리점 반발이 심한 독일보다 당시 대리점 판매망이 가장 저조했던 네덜란드가 유럽 진출거점으로 결정되었다.

거점 결정 이후, 유럽 진출 계획은 잠시 미뤄져 2016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었다. 인바디사는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과 접촉, 건물 모색 등 신규 법인 설립에 관한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네덜란드 내 거점 설립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인바디사 거점 설립 계획이 네덜란드 법인 설립 대신 독일 대리점 인수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독일 대리점과 본사의 세부조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네덜란드 법인 설립이 재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사무실 임대 서비스 회사 Spaces를 통해 주소를 확보하고, 11월 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지원하에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4) 사운드 그래프(Sound Graph BV)

사운드 그래프(Sound Graph) 사는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제공 회사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 회사이다.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선두주자로 국내 매장 4천여 곳에 사운드 그래프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다. 동사는 2017년 3월 네덜란드 투자진흥청을 통해 유럽시장 진출 정보를 얻고, 같은 해 5월 암스테르담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사업 법인설립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무

역관의 행정지원을 통해 계좌개설 및 각종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유망바이어 발굴 등을 진행했다. 8월에는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다. 마침 네덜란드에 런칭한 던킨도너츠 프랜차이즈와 수차례 미팅 후 초도계약을 할 수 있었다. 던킨도너츠의 경우 이미 다른 공급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사운드 그래프의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해 기존 사이니지 공급 계약과 별도로 추가 오더를 수주하였고 현재는 던킨도너츠의 유럽 총 50개 지점(네덜란드 30개, 독일 20개)에 사운드 그래프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대표 생활용품 매장인 헤마(HEMA) 15개 매장과 네덜란드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동방행(Amaizing Oriental) 암스테르담 지점과 헤이그 레스토랑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유럽 전역을 무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배우자, 연인, 가족, 친척 비자

네덜란드 내의 배우자, 연인관계의 파트너, 가족, 친척을 연고로 하여 네덜란드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이에 대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고등교육 학업

네덜란드에서 3개월 이상 학사 과정 이상의 학업을 원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필요하다.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동 기관(학교)에서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학생을 수용할지를 결정한 후, 수용하는 경우 학생을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을 원하는 경우, 근로에 대해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며, 노동허가를 받는다 해도 주당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거나 6~8월에 한해서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사 과정을 막 마쳤거나, 최근 3년 안에 상위 200위 대학 중 한 곳에서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Zoekjaar afgestudeerde 혹은 Regeling hoogopgeleide라고 불리는 제도를 활용해 네덜란드에서 1년간 구직을 시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내에 휴가수당 제외 월 2,423유로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구한다면 지식근로자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근로 활동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 근로 활동(Arbeid in loondienst)은 고용계약 하에서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실업급여청(UWV)에 노동허가(tewerkstellingsvergunning; TWV)를 신청해야 한다. 5주~3개월간의 결원 모집 기간 동안 네덜란드 및 유럽의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 신청 5주 전에 이미 실업 급여청에도 결원 보고를 해두어야 한다.

개인 사업가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zelfstandig ondernemer)은 네덜란드에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로, IND에 개인사업가로서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록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동봉해야 한다.

고학력 기술이민자(Highly skilled migrant)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kennismigrant)의 경우, 지식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 수준이 만 30세 이상의 경우 월 4,612유로, 만 30세 미만은 3,381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고용주가 이민청의 인가보증인이어야 한다. 지식근로자는 노동허가(TWV)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거의 모든 주재원이 이 형태의 체류허가를 바탕으로 체류 중이다.

European Blue Card 소지자로서의 근로 활동은 고학력 비유럽 국적자의 EU 내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European Blue Card 제도에 의해 네덜란드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네덜란드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가 5,403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초빙교수로서의 근로 활동, 연구원으로서의 근로 활동 등에 따른 비자가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네덜란드의 휴대품 면세는 EU 역내 여행자과 EU 이외 지역 여행자로 나뉘어 처리된다. EU 역내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에 대한 통관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카나리 섬, 샤넬 섬은 EU 역내로 인정되지 않는다.) EU 역내 여행자의 경우 면세되는 휴대품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10리터 이하 맥주, 90리터 이하 와인, 60리터 이하 스파클링 와인, 20리터 이하 셰리, 포트 와인, 10리터 이하 위스키, 코냑, 진 등 주류

- 담배 800개비, 대당 3그램 이하의 시가 400개비, 시가 200개비, 1KG 이하의 절단 엽연초

EU 이외 지역 여행자의 경우 다음 품목은 면세되며, 허용치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 EU 이외 지역에서 반입한 430유로 이하의 물품

- 1리터 이하 주류, 2리터 이하 스파클링 와인, 16리터 이하의 맥주

- 담배 2,000개비, 시가 50개비 이하

이외의 특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0,000유로 이상을 반입 혹은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모조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반입이 가능함.

- 20kg 이상의 고기, 생선, 유제품은 반입 불가(EU 역내 반입은 허용), 125g 이상 캐비어 반입 불가 (이하의 무게에서 430유로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 소량의 과일 및 채소는 허용됨.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31-70-740-0200
주소	Verlengde Tolweg 8, 2517 JV, Den Haag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l-ko/index.do

○ 네덜란드 한인교회

전화번호	+31-20-641-1033
주소	De Ruyschlaan 147, 1181 PE, Amstelveen
홈페이지	https://www.koreanchurchnl.org/

○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전화번호	-
주소	Elegast 5, 1185 AA, Amstelveen
홈페이지	http://www.koreanschool.nl/ko/home_kr/
비고	이메일: info@koreanschool.nl

○ 네덜란드 한인회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http://korned.org/
비고	이메일 : koreanned@gmail.com

<자료원 : 해당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네덜란드 정부

전화번호	+31-70 -214-0214
주소	-

홈페이지	http://www.rijksoverheid.nl
비고	네덜란드 정부 기관 인포메이션 센터

○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31-88-585-1585
주소	De Ruijterkade 5, 1013 AA,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kvk.nl

○ 이민국

전화번호	+31-88-043-0430
주소	Pieter Calandlaan 1, 1065 KH,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ind.nl

○ DPG media 신문사

전화번호	+31-20-562-9111
주소	Jacob Bontiusplaats 9, 1018 LL,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dpgmedia.nl/
비고	2019년 5월 23일, The Persgroep Netherlands에서 DPG media로 사명 변경. 이메일: info@dpgmedia.nl

○ Mediahuis Nederland 신문사

전화번호	+31 88-824-2222
주소	Basisweg 30, 1043 AP, Amsterdam
홈페이지	https://www.mediahuis.nl/
비고	2019년 11월 4일, the Telegraaf Media Groep에서 Mediahuis Nederland로 사명 변경 이메일: communication@mediahuis.nl

<자료원 : 해당 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5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88
2	식품	비빔밥	1인분	21.9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23.66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8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37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7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53
8	의료	진통제	50정	1.29
9	교통	시내버스요금(교통카드 미소지)	기본요금	3.78
10	교통	지하철요금(교통카드 미소지)	기본요금	3.78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77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3.6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84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1.9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4.78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9.46
17	여가	소주(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7.8
18	임금	최저임금(월)	법정최저	1615.16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0485.2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10년)	%	-0.53

<자료원 : 네덜란드 통계청, ah.nl>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대표적인 유로존 국가로 유럽연합 단일화폐인 유로를 사용한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유로가 사용되며, 동전은 0.05, 0.1, 0.2, 0.5, 1, 2유로가 사용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에 있는 은행, 시내의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 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 은행 지점에서는 환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 환전소 GWK Travelex offices를 통해 환전할 수도 있다.

-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
 - 은행: 3-4% / 호텔: 6-11%
 - 환전소: 3-6% (공항 내 환전소는 수수료 저렴 2.5-3%)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마에스트로, AE)는 호텔, 백화점, 고급레스토랑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슈퍼, 일반 상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만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 상점 카운터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Pinkassa, Alleen Pinnen이라는 문구와 함께 직불카드 전용 카운터가 존재)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현금 못지않게 PIN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으며, MAESTRO 가맹이 돼 있는 유럽지역 타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보다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 구입, 각종 예약 시 사용하게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PIN 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권장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네덜란드는 자전거 도로가 발달한 나라로 도시 어디에서든 한국에 비해 넓은 자전거 도로를 발견할 수 있다. 트램 구간과 넓은 자전거 도로로 인해 한국에 비해 자동차 도로가 좁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낮시간 도심에서 자가용 운전과 주차는 쉽지 않은 편이다.

네덜란드 관광교통 지원기구(ANWB, Algemene Nederlandse Wielrijdersbond)는 늦여름인 7월에 온화한 여름 날씨와 휴가 기간으로 인해 약 13% 이상 교통체증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Metro)과 경전철(Tram)을 이용할 수 있다. 9292.nl 사이트를 이용하면 버스, 지하철, 경전철,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시간 및 경로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며 비교적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버스

승차권은 역내에 설치된 GVB 판매소를 이용하거나 트램의 가장 첫 칸에서 운전자에게 사는 방법이 있다. 한 번만 이용 시에는 1시간짜리 승차권(EUR 3.20)을 사는데, 3~4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지하철역에서 1일권(EUR 8.50), 3일권(EUR 18.5)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승차권은 태그 기기나 단말기에 승차권을 태그한 시각부터 유효하다. 야간버스는 1회 승차에 EUR 4.5의 비용이 든다. 네덜란드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라면 교통카드인 OVchipkaart를 사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OV카드는 각 역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살 때 7.5유로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사용방법은 차량 내 태그 기기에 표를 대거나 지하철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표를 대고 통과하면 된다. 내릴 때도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트램을 타고 내릴 때 한국과 같이 자동문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트램 모두 환승 가능하다. 스키폴 공항에서 암스테르담 시내로 가는 경우 199번 버스를 타면 편리하다. 한인 식당이나 마트 등이 모여있는 암스텔베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300번 버스를 타면 좋다. 네덜란드 국외로 버스를 타고 갈 시에는 유로라인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한다. 사이트는 www.eurolines.nl/en/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택시

택시 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다소 비싼 편으로 암스테르담 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은 3.26유로이며, 1km당 2.40유로가, 1분에 36센트가 부과된다. 택시요금은 네덜란드에서 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본 2~5유로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참고로 스키폴 공항에서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남부지역(Strawinskylaan 1253)까지는 약 11km로 편도 약 3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 우버 택시가 일반 택시 가격과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되는 방법이다.

택시는 대부분 Call Taxi로, 암스테르담에서 호출 시는 Taxicentrale(0900-677-7777 또는 020-777-7777), TaxiDirectAmsterdam(088-777-7777)으로 전화하면 된다. 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는 잘 잡히지 않는다.

최근 스키폴 공항과 암스테르담 사이를 운행하는 전기 택시가 편도 30유로에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기 택시 전화번호는 +31-(0)88-100-4444이다. (홈페이지 www.taxielectric.nl에서도 예약 가능하다)

기차

시외 교통수단으로는 기차가 가장 저렴하며 편리하다. 네덜란드 철도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ns.nl와 www.nsinternational.nl을 이용하면 네덜란드 국내선 및 국제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차가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기 전 역내의 상황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차는 역내의 티켓 판매소에서 티켓을 끊거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기차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충전된 금액이 2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최근 기차에 대한 무임승차 검사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차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임대 자전거

네덜란드 교통카드인 OV chipkaart를 이용해 자전거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 자전거 OV Fiets는 지하철역, 기차역, 도심지 등 약 300곳에 위치해 있다.

2015년 월 15유로 정도의 정기권을 구매하고 자전거를 임대하는 Swapfiets(스타트업) 라는 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했다.

다. 통신

핸드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의 조건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Sim card라는 소형 칩을 휴대전화기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후불제와 선불제가 있는데, 후불제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기간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 할당된 시간의 무료통화 및 문자 사용이 가능하고, 할당시간 및 서비스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을 다음 달에 지불하게 된다. 휴대전화 가격(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이 달라짐)에 기본요금과 부가금(추가 이용요금)이 합산돼 비용이 부과되며, 가입 계약 기간, 할당 시간, 서비스 등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정액이 달라지므로 체류 기간을 잘 고려해야 한다. 계약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원하는 기종에 따라 정액이 달라지며, 휴대전화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후불제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낮은 정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제는 일반적으로 Pre-paid라고 통칭하며 sim-card에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휴대폰 사용 빈도가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이 따로 없고 일반전자상가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Prepaid Sim-card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충전용지(€ 10, 20, 50 등 다양)를 구입해 sim-card에 충전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충전할 수 있다. 계약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히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전화요금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사는 KPN, T-mobile, Vodafone 등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www.bellen.com 등의 사이트에서 통신사별 요금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네덜란드는 타 EU 국가들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펀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카페, 공공 시설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또한, 시외교통 기차 Intercity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 네덜란드 국립박물관(Rijksmuseum)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Museumstraat 1, 1071 XX Amsterdam
운영시간	매일 9:00~17: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5~19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품, 선사시대 이후 네덜란드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렘브란트의 야경이 전시된 네덜란드 최대의 국립박물관이다.
비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재국 공공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재확인 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반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Museumplein 6, 1071 DJ Amsterdam
운영시간	매일 9:00~18:00
휴무일	토, 일
명소소개	유화작품 200여 점, 데생 500여 점 및 편지 7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 고흐 소장품 미술관으로, 반고흐 작품 이외에 기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재국 공공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홀란드 카지노(Holland Casino)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Max Euweplein 62, 1017 RR, Amsterdam
운영시간	매일 오후 12:00~오전 3: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다운타운 렘브란트 광장 주변에 위치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로, 호화스러운 내부에 약 500대의 슬롯머신을 보유, 대시설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다. 18세 이상에 정장차림의 여권 소지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비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재국 공공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잔세스칸스(Zaanseschans)

도시명	잔담
주소	Schansend 1, 1509 AW, Zaandam
운영시간	-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돼 있던 각종 옛 풍차들(종이 및 기름제조 등)을 옮겨 재조립해 관광지로 조성한 민속촌으로, 현재도 주민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으며 나막신과 치즈 제조 공장 및 상점이 있다.

○ 에프틸링(Efteling)

도시명	카슈펠
주소	Europalaan 1, 5171 KW, Kaatsheuvel
운영시간	매일 11:00~18:00, 19:00~23: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952년 개장한 네덜란드 최대의 놀이공원으로 유럽 내에서도 역사가 깊은 놀이공원이다. 동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fairytale forest가 유명하며, 공원 전체가 독창적인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어 볼거리가 가득하다.
비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재국 공공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원 : 해당 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더 로더 레우 (De Roode Leeuw)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555-0666
주소	Damrak 93-94, 1012 LP, Amsterdam
가격	20~25달러
영업시간	매일 7:00~23:30
휴무일	없음
소개	암스테르담 호텔 De roode leeuw의 부속 레스토랑

○ 야마자토(Yamazato)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78-7450
주소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 Amsterdam
가격	55~100달러
영업시간	월~일: 17:30~21:30 / 목~일 : 12:00~14:00
휴무일	없음
소개	암스테르담 Okura 호텔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

○ 더 용어 디커르트 (De Jonge Dikkert)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43-3333
주소	Amsterdamseweg 104a 1182 HG, Amstelveen
가격	25~55 달러

영업시간	매일 12:0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각종 생선(연어)요리, 스테이크 등 판매하는 레스토랑

○ 로쳐(Loetje)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62-8173
주소	Johannes Vermeerstraat 52, 1071 DT, Amsterdam (Amsterdam) / Werfkade 14, 1033 RA, Amsterdam/ Amstelzijde 35-37, 1184 Amstelveen (Aan de Amstel)
가격	25~45달러
영업시간	매일 10:00~22:30
휴무일	없음
소개	스테이크 등 각종 양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음. 현재 암스테르담 내 3개 지점 보유하고 있음.

○ 바롱 (Walong)

도시명	헤이그
전화번호	+31-70-355-2146
주소	Frederik Hendriklaan 286, 2585 BN, Den Haag
가격	20~25달러
영업시간	매일 12:0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헤이그에 있는 딤섬 전문 중식 레스토랑

<자료원 : 해당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나무 (Namu)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341-5164
주소	Kunstverlorenhof 54, 1183 HG, Amstelveen
가격	16~18유로, 점심: 10유로

영업시간	월, 화 12:00~14:00 / 18:00~22:00, 수-토 12:00~1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Amstelveen 지역에 있는 한식당

◦ 화원(Hwawon)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4- 3142
주소	Nederhoven 13/15, 1083 AM, Amsterdam
가격	16~20유로(찌개류 기준)
영업시간	월-토 18:00~22: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식당이 모여있는 Nederhoven 지역에 있는 식당

◦ 칸(Khan)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46-3722
주소	Nederhoven 9, 1083 AM, Amsterdam
가격	16~20유로(찌개류 기준)
영업시간	17:30~22:00
휴무일	수요일
소개	한식당이 모여있는 Nederhoven 지역에 있는 식당

◦ 한국관(Restaurant Korea)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44-5273
주소	Van Boshuizenstraat 209, 1083 AW Amsterdam
가격	16~20유로(찌개류 기준)
영업시간	12:00-22:00(중간 휴식 14:00-17: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한식당이 모여있는 Nederhoven 지역에 있는 식당

○ 담소(Damso)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40-1877
주소	Dorpsstraat 88, 1182 JG, Amstelveen
가격	15~20유로
영업시간	월-토 12:00-22:00(중간 휴식 14:00-18: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Amstelveen 지역에 있는 한식당

○ 미스코리아(Miss Korea)

도시명	암스테르담
전화번호	+31-20-679-0606
주소	Albert Cuypstraat 66, HS 1072 CW, Amsterdam
가격	25유로
영업시간	화-일 17:00-23: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무한리필식 바베큐 식당

<자료원 : 해당 식당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오쿠라 호텔(Hotel Okura)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 Amsterdam
전화번호	+31-20-678-7111
홈페이지	http://www.okura.nl
숙박료	싱글/트윈 : 300유로
소개	5성급 호텔

○ 스타이헌베르헨 호텔(Steigenberger Hotel Amsterdam Airport)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Stationplein 951, 1117 CE, Schiphol
전화번호	+31-20-540-0777
홈페이지	http://www.steigenberger.com
숙박료	싱글/트윈 159유로
소개	공항 근처의 4성급 호텔

○ 힐튼 호텔(Hilton Amsterdam Hotel)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Apollolaan 138, 1077 BG, Amsterdam
전화번호	+31-20-710-6000
홈페이지	http://www.hilton.com
숙박료	싱글/트윈 : 280유로
소개	전세계에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5성급 호텔

<자료원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더치스호스텔(DutchiesHostel)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Sara Burgerhartstraat 21A, 1055 KV, Amsterdam
전화번호	+31-20-233-7446
홈페이지	http://www.dutchieshostel.com
숙박료	1박 평균 20~40유로
소개	암스테르담 서부 Sloterdijk 지역에 위치한 호스텔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임.

○ 와우 호스텔(WOW Amsterdam Hostel)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Wiltzanghlaan 60, Bos en Lommer, 1061 HC, Amsterdam, Netherlands
전화번호	+31-20-705-9400
홈페이지	http://www.wow-amsterdam.nl
숙박료	1박 15~40유로

○ 에이앤오 호텔(A&o Amsterdam Zuidoost)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Hogehilweg 22, Zuidoost, 1101 CD, Amsterdam
전화번호	+31-20-258-9100
홈페이지	http://www.aohostels.com
숙박료	1박 15~50유로
소개	독일, 체코 등 유럽 숙박 체인으로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 지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원 : 해당 호텔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네덜란드 범죄율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17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49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기록은 1,000명당 93건의 범죄 건수를 기록한 200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2019년 10월 기준 외교부에서 네덜란드에 발령한 여행경보는 없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사나 보험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손해 정도에 대한 문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본인의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않았을 경우 서명을 보류해야 한다.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 네덜란드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 여권 분실 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 여권 번호 및 발급 일자, 유효 기간(여권의 관련 면 항상 복사 소지 요망)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및 범죄

- 경찰: 112(범죄신고 및 응급차 요청 시)

○ 의료

- 긴급 의사 문의: +31 (0) 20 237 3654 (Amsterdam Tourist Doctors)

- 야간 약국: 일간지 또는 각 약국 문에 안내문 참고 (약국 - APOTHEEK, 병원 - ZIEKENHUIS)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일반주택(Rijtjes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전통주택은 대개 2~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1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층 또는 3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암스테르담 인근에 위치)의 경우 1,500~3,000유로/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낮다. 아파트는 방 2~3개(창고 별도)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1개월당 1,500~2,000유로 수준이다(세미 퍼니쉬드 기준, 가구가 전무할 경우 통상 500유로 이상 싸진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부동산사무소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사이트에 매물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www.funda.nl
- www.renthouse.nl
- www.pararius.com
- www.huurwoningen.nl

네덜란드 주택 매매나 임대차 사이트에서 흔히 보는 Huur과 Huren은 임대를 의미하고, Verkoop과 Verkopen은 매매를 의미한다.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개월분 임차료와 VAT(21%) 기타 행정 수수료 등이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임차료 1개월 또는 2개월에 해당하는 예치금(퇴거 시 주택 원상 복구 여부 검사 후 반환)과 1개월분 임차료를 선불해야 한다. 임차료 인상은 연 1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 인터넷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사항이다. 계약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이나 전근발령에 대비하여 계약서 기본약관에 "외교관 조항(Diplomat Clause)"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주택 계약이 완료되고 이사를 갈 때, 통상적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야 하며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네덜란드 부동산들은 주택에 손상이 없는지 간간하게 따지며, 특히 가구가 구비돼 있는 주택의 경우 이사 갈 때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임차를 시작할 때 먼저 손상이 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 구분

-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하여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수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된 집의 형태
-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 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제한은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간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 광고상의 가격은 보통 협상이 가능한데, 가구, 시설물(Fixture), 부속물(Appurtenance) 등은 보통 광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에 포함할 경우 가격 협상 시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매각광고 가격 뒤에 k.k.(혹은 kk)라는 글자가 보이는 경우는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각광고에 나온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가격에 대해 일단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에서 구매계약증서(Purchase Deed)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데, 이는 이후 일방의 사정으로 거래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매계약증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통상 3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판매자가 10%의 초기납입금(Down Payment)을 지불하고 나면 구매자는 사인 된 구매계약증서(Purchase Deed)를 민법공증인(Civil-Law Notary)에게 보내 양도증명작성 절차를 밟게 된다. 공증인은 지적청(The Netherlands' Cadastre, Land Registry and Mapping Agency / Kadaster)을 통해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전 증서(Deed of Transfer)를 작성하는데, 해당 이전증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인은 물론 부동산의 이전을 확인하는 공증인의 사인도 필요로 한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 이전이 완료된다.

이후 공증인이 해당 이전증서를 지적청(The Netherlands' Cadastre, Land Registry and Mapping Agency / Kadaster)에 송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부동산 이전 등록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서 보통 주택 구매자는 자기자본(초기납입금, Down Payment)의 수배에 이르는 자금(모기지)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금융시장의 신용여건 및 가계차입비율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이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 시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10~12%의 거래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등록비용, 부동산 이전 세금이 된다. 가격합의 시점에서부터 초기납입금 지불, 계약서 송부, 지적청 등록의 네 단계에 보통 7일이 소요된다.

전화

현재 네덜란드에는 KPN, TELE2 등 각종 통신사에서 TV, 전화, 인터넷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실제 사용 시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직접 설치해 주지 않고 대부분 우편으로 모뎀 등을 보내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치 직원이 나올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에 따라 무상 출장서비스도 있는 경우가 있고, 설치시간도 2주 내로 신속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업체 선정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종 노트북 제공 등 사은품 행사도 많으나 의무 계약 기간이 2년 정도로 다소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의 조건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Sim Card라는 소형 칩을 휴대전화기에 장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후불제와 선불제가 있는데, 후불제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기간을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 할당된 시간의 무료통화 및 문자 사용이 가능하고, 할당시간 및 서비스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금을 다음 달에 지불하게 된다. 휴대전화 가격(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이 달라짐)에 기본요금과 부가금(추가 이용요금)이 합산돼 비용이 부과되며, 가입 계약 기간, 할당 시간, 서비스 등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정액이 달라지므로 체류 기간을 잘 고려해야 한다. 계약과 동시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원하는 기종에 따라 정액이 달라지며, 휴대전화기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후불제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낮은 정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제는 일반적으로 Pre-Paid라고 통칭하며 Sim-Card에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휴대폰 사용빈도가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이 따로 없고 일반전자상가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Prepaid Sim-Card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충전용지(€ 10, 20, 30, 50 등 다양)를 구입해 Sim-Card에 충전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애

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충전할 수 있다.

계약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히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전화요금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사는 KPN, T-mobile, Vodafone 등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www.bellen.com 등의 사이트에서 통신사별 요금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장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다.

식수

네덜란드의 수도물은 바로 음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pa, Chaudfontaine, Sourcy 등이 현재 네덜란드 내 유명 식수 브랜드이며, 주로 일반 생수는 파란 병, 탄산수는 빨간 병에 포장되어 나온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는 거주지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확인증(Uittreksel)만 있으면 거주비자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절차도 간단해서 신차, 중고차와 관계없이 딜러가 모두 처리해 주고 개인이 거래하는 중고차의 경우는 근처 우체국에서 약 5분 정도의 간단한 수속으로 차 소유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40%의 BPM(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특히 디젤 차량에는 40% 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366유로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BPM 면제 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정부 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추천된다. (정부 사이트 링크: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en/belastingdienst/individuals/cars/bpm/exemption/>)

자동차 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 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 시 1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는 www.autotrack.nl, www.marktplaats.nl이 가장 인기 있으며, 1~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찾아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자동보다 수동이 많은 편이며, 장거리 유럽여행을 위해서 크루즈 컨트롤(Crusie)이 장착된 차량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에는 유료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 차량 주차증을 구입해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데, 본인 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종을 시청에서 구입해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이 주차증은 분기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 갱신 신청해야 함)된다.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 지역이 아닐 경우 바로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나, 암스테르담 시내의 번잡한 지역은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의 경우 교통 조건이 한국과 비슷하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직진 차량 우선이며, Roundabout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주로 우선이다. ▼▼▼▼와 같은 표시가 있을 경우 표시의 아래 차량은 비우선, 위의 차량은 우선이다. 과거 우측 진입 차량이 우선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법규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 및 규정 속도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고 가끔 음주 단속도 실시하므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100~130km/h, 국도 100km/h, 지방도 70~80km/h, 시내 30~50km/h의 속도제한이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적용된다.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임시로 차단 될 경우 주재국은 노란색 표지판을 설치해 우회로를 안내하는바, 원하는 목적지는 해당 노란색 표지를 따라가면 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50~4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하얀 선으로 구획이 지어진 주차공간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 수도 매우 많아 자동차 운행 시 자전거 이용자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있으며, 차량의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측에 있는 자전거의 직진 신호도 파란불이 될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량가격

Autoweek.nl의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는 Volkswagen, Renault, Opel이며, 판매 모델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https://www.autoweek.nl/verkoopcijfers/2020/>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증을 네덜란드 것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교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사관에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신청(방문 또는 우편접수)

준비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앞뒤), 거주허가증(ID) 사본(앞뒤), 영문번역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반송 봉투(수신자 주소 기입) 및 우표를 동봉해 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송부

2) 시청에서 'Eigen Verklaring'(운전능력확인서) 신청 및 제출

Expat Center Amsterdam에서 'Eigen Verklaring' 양식 구입(약 20유로) 후 작성·우편송부

2~3주 후 CBR(네덜란드 운전면허센터)에서 본인 앞으로 승인 레터가 옴.

3) 시청의 'Burgerzaken' 부서에서 교환 신청

준비서류: 운전면허 교환신청서(시청에서 입수), 컬러 여권 사진 1배, 운전면허증 원본,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본, 신분증(여권), 거주허가증, 수수료 약 40~50유로

서류 미흡 시 추가 제출 통보가 오며, 이 경우 6주 내로 서류를 보완해야 함.

4) 운전면허증 수령: 시청에서 발급 완료 공지가 오면 시청을 방문해 수령

차량을 구입 또는 이삿짐과 함께 운반해 올 경우, 차량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찰에서 발급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영문) 제출 시 최대 75%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과는 별도로 차량 고장 시 등을 대비해 긴급 수리 서비스 업체인 ANWB에 가입하면 연 55유로에 간단한 수리, 견인, 타이어 교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럽 전역 서비스를 신청 시 30유로가량 추가 소요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ABN Amro 은행: <https://www.abnamro.nl/en/personal/index.html>
- ING 은행: <https://www.ing.nl/particulier/english/index.html>
- Rabobank 은행: <https://www.rabobank.nl/bedrijven/english-pages/>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 개설 시, 사회보장번호인 Public Service Number(BSN)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주택 임대 또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주지나 사무실로 PIN 카드(직불카드)와 인터넷 뱅킹용 암호 대조기(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기계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및 자금 거래 시 사용)를 우편으로 송부해주며, PIN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점포나 해당 은행 ATM(현금인출기)기에서 활성화(Activate)시키면 된다. 한 통장에 2개 이상의 PIN 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은행 거래내역이 쌓이면 별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현금 못지않게 PIN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으며, MAESTRO 가맹이 돼 있는 유럽지역 타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보다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 구입 및 각종 예약 시 사용하게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PIN 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계 은행인 KEB 하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 모두 가능하다. 계좌 개설 약 1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이나 공공요금은 Giro Transfer Form(Acceptgiro)이나 Credit Transfer Form(Slip)을 이용, 본인 계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 뱅킹은 보안이 잘돼 있으므로 일반 지불 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은행별 모바일 뱅킹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Nord Andlia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로테르담
커리큘럼	국제학력평가시험(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기준 커리큘럼
학비	학년에 따라 14,900~18,9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ISA)

도시명	암스테르담
커리큘럼	국제학력평가시험(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기준 커리큘럼 및 추가 과목

학비	학년에 따라 16,650~24,200유로
홈페이지	http://www.isa.nl/
비고	영국계 국제학교

○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도시명	헤이그
커리큘럼	미국 교육체계를 기반한 커리큘럼으로 예체능 과목 비중이 큼
학비	14,650~22,890유로
홈페이지	http://www.ash.nl/
비고	미국계 국제학교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Spinoza Lyceum

도시명	암스테르담
커리큘럼	VWO, Havo, Mavo(한국의 고등학교)
학비	수업료 없음 / 특수 활동비 170유로
홈페이지	http://www.spinozalyceum.nl/

○ Visserschool

도시명	암스테르담
커리큘럼	초등교육
학비	수업료 없음 / 연간 특수 활동비 65유로
홈페이지	https://devisserschool.nl/home-eng/
비고	기독교 학교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Maastricht UMC+

도시명	마스트리흐트
주소	P. Debyelaan 25, 6229 HX, Maastricht
전화번호	031-43-387 6543

진료과목	종합 진료
------	-------

○ AMC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Meibergdreef 9, 1105 AZ, Amsterdam
전화번호	+31-20-566-9111
진료과목	종합 진료

○ OLVG location East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Oosterpark 9, 1091 AC, Amsterdam
전화번호	+31-20-599-91 11
진료과목	종합 진료
비고	네덜란드 내 여러 지점 보유

<자료원 : 해당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로어몬트 아울렛 (Roermond fashion outlet)

도시명	로어몬트
주소	Stadsweide 2, 6041 TD, Roermond
홈페이지	http://www.mcarthurglen.com/nl/outlets/nl/designer-outlet-roermond
비고	암스테르담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로어몬트시에 위치한 아울렛으로 각종 유명브랜드 제품을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할인가격에서 추가할인을 실시하므로 알뜰쇼핑도 가능하다.

○ 베이언코프(Bijenkorf)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Dam 1, 1012 JS,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debijenkorf.nl
비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등 시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백화점이다.

○ 아이할른 베틀시장(IJ-Hallen)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TT Neveritaweg 15, 1033 WB, Amsterdam-Noord
홈페이지	http://www.ijhallen.nl
비고	4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암스테르담 북부에서 베틀시장이 열린다. 유럽에서 가장 큰 베틀시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앤티크, 옷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자료원 : 해당 쇼핑센터 홈페이지>

- 식품점

○ Albert Heijn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Wibautstraat 80, 1091 GP, Amsterdam
취급 식료품	종합 식료품점
비고	유통체인으로 네덜란드내 여러 지점 보유

○ Albert Cuyp Markt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Albert Cuypstraat, 1073 BD, Amsterdam
취급 식료품	식료품, 의류 등
비고	19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암스테르담 대표 시장

○ Jumbo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Eerste Constantijn Huygensstraat 55H, 1054 BS, Amsterdam
취급 식료품	종합 식료품점
비고	유통체인으로 네덜란드 내 여러 지점 보유

<자료원 : 해당 식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핏포프리(FitForFree)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Europaboulevard 3, 1079 PC,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fitforfree.nl
소개	네덜란드 최대 휘트니스 체인으로, 한국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폰델공원(Vondelpark)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1071 Vonderpark,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hetvondelpark.net
소개	암스테르담 시내에 근접한 공공 공원

○ 영화관(Pathe City)

도시명	암스테르담
주소	Kleine-Gartmanplantsoen 15-19, 1017RP, Amsterdam
홈페이지	http://www.pathe.nl
소개	암스테르담 시내에 위치한 영화관

<자료원 : 해당 편의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 day)	2021-01-01	
Good Friday	2021-04-02	
부활절	2021-04-04	~2021-04-05 (2일간)
왕의 날(King's Day)	2021-04-27	
독립기념일	2021-05-05	
예수 승천일(Ascension Day)	2021-05-13	
성령 강림일(Whitsunday Weekend)	2021-05-23	~2021-05-24 (2일간)
성탄절(Christmans)	2021-12-25	~2021.12.26.(2일간)

<자료원 : <http://www.rijksoverheid.nl>>

9. KOTRA 무역관 안내

암스테르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trawinskylaan 1253, 1077 XX, Amsterdam (WTC Amsterdam)
- 전화번호: +31 (0) 20 673 0555
- 이메일: info@koreatradecenter.nl
- 홈페이지: <https://www.koreatradecenter.nl/>

공항-무역관 이동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네덜란드 비즈니스의 중심인 World Trade Center에 위치하고 있다. 스키펴(Schiphol)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15~20분이 소요된다. 공항 입국장 출구에서 공항택시 탑승 후 World Trade Center까지 이동하여 C 타워의 12층으로 오면 무역관을 찾을 수 있다.

공항에서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약 35유로이며 15~20분가량 걸린다. 우버(Uber)를 호출할 경우에는 20~26유로로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스키펴(Schiphol) 공항의 지하에 위치한 기차역에서 WTC(Amsterdam-Zuid역) 사인이 있는 플랫폼에서 기차에 탑승하여 한 정거장 후 하차하면 WTC에 도착할 수 있다. 다만, Amsterdam Centraal행 기차를 타면 WTC에 정차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